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經濟學碩士 學位論文

고령화 사회와 금융상품 선택의 변화

The aging society and the change of choices
in the financial commodities



2016年 2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貿 易 學 科
손 정 숙

本 論文을 손정숙의 經濟學碩士
學位論文으로 認准함

委員長 정 홍 열 (印)

委 員 임 재 욱 (印)

委 員 유 일 선 (印)



2015年 12月 00日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 목 차 >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3절 논문의 구성	4
I제2장 한국의 고령화 현황	6
제1절 고령화 사회의 진행현황	6
제2절 기대수명과 출산율변화에 따른 고령화 현상	10
제3장 고령화와 금융형태 변화	14
제1절 선행연구	14
제2절 고령화와 적정 가계소득	18
제3절 고령화와 금융형태	26
1. 금융상품의 분류	26
2. 금융상품의 가입현황과 추이	29
3. 노령인구 노후자금 형태	36
제4장 고령화와 금융변화의 특징	40
제1절 고령인구의 금리에 대한 탄력성 평가	40
제2절 선호자산(저축)의 변화	41
제3절 정책적 시사점	51
제5장 결 론	54
참고문헌	58

〈표 목 차〉

표 2-1. 인구 및 고령화 전망 추이 (2000~2050)	6
표 2-2. 주요 국가별 인구 고령화의 진전	7
표 2-3. 합계 출산율, 2005~2014	10
표 2-4. 연령별 미혼율	11
표 3-1. 각국 자영업자 비율	19
표 3-2. 노후필요자금예시	21
표 3-3. 목표자산달성을 위한 30년간 월 납입금액	22
표 3-4.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27
표 3-5. 기업·개인보장 실버금융상품의 분류	28
표 3-6.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중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	30
표 3-7. 주택연금 가입자 수 및 상승률(2014~2015)	30
표 3-8. 국민연금 연도별 가입자 현황	32
표 3-9. 연도별 적립금 및 수익률	33
표 3-10. 65세 이상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수 전망	34
표 3-11. 퇴직연금 도입 현황 및 유형	35
표 3-12. 노인의 소득원 유무(복수응답)	38
표 3-13. 고령가구의 소유형태	38
표 4-1. 고령화에 따른 저축률 및 투자율 전망	43
표 4-2. 가구 특성별 자산과 부채의 규모와 분포	43
표 4-3. 가구주 연령별 금융자산 현황	46

〈그림 목 차〉

그림 2-1. 성 및 연령별 인구피라미드, 2010-2040	8
그림 2-2. 유소년 부양비 및 노년 부양비, 1960~2060	9
그림 2-3. 연령별 미혼율	11
그림 2-4. 가정별 기대수명, 1970-2060	12
그림 3-1. 월 이자 수익 2,000,000원을 위한 이자율 별 자산규모	22
그림 3-2. 월평균 명목 및 실질 가구소득	23
그림 3-3. 개인순저축률	24
그림 3-4. 가구 순자산	25
그림 3-5.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주택가격 변동추이 및 평균 월지급금 변동추이	31
그림 3-6. 퇴직연금 도입 현황	35
그림 3-7. 65세 이상 고령자 노후준비(%)	36
그림 3-8. 65세 이상 고령자 생활비 마련방법(%)	37
그림 4-1. 생애주기 가설에 의한 연령대별 소득, 소비 및 저축 유형	42
그림 4-2. 연령대별 가계 순자산, 부채 및 자산보유	44
그림 4-3.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구성 연도별 추이	47
그림 4-4. 주요국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구성	48
그림 4-5. 전체 가구의 금융자산 고려사항 비중	50
그림 4-6. 베이비부머 금융자산 고려사항 비중	50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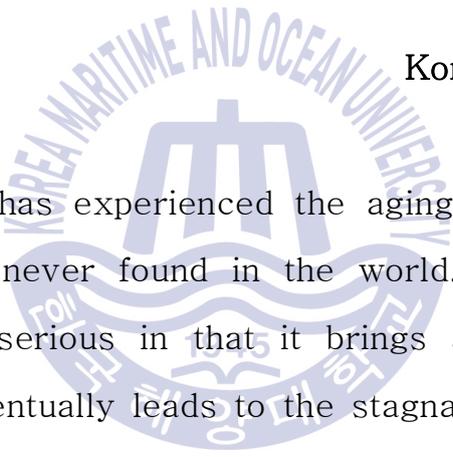
The aging society and the change of choices in the financial commodities

by Son, Jung Sook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Korea Maritime University



The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the aging society rapidly to the extent that it can be never found in the world. It is argued that the aging phenomenon is serious in that it brings about the reduction of consumption, which eventually leads to the stagnation of economy.

The major factors which cause aging phenomenon in Korean society are known as the extension of anticipated life expectancy and low birth rate. Especially between both of them, low birth rate have more effect on the speed of aging phenomenon. Korean government has carried out the policies designed to enhance the birth rate, but the performance is not clear yet. If this problem is not solved, Korean society is getting older and older.

The main characteristics of Korean aging society are as follows. Firstly, in terms of asset accumulation in Korea, the proportion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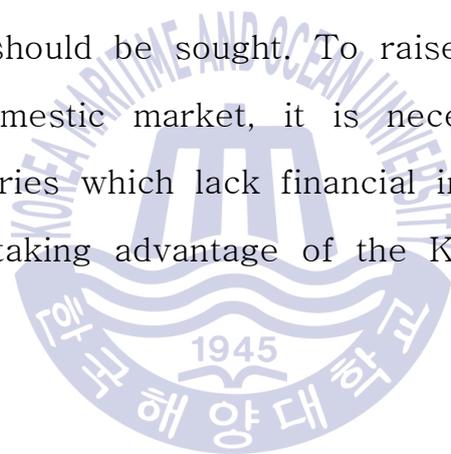
financial assets is less than that of real estate. The retirement savings has got damaged because of a big fall in prices of real estate. Secondly the preparation for a life after retirement is never made sufficiently. Over 60% of laborers answered that they were not ready to lead a basic life after retirement in the questionnaire. Thirdly the retired laborers which change into risk averters, put stress on the stability more than the profitability and the proportion of pension and insurance is increasing.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government policies can be derived to improve the life quality of the retired. Firstly social insurance should be more promoted in the dimension of social welfare system. The living standard after the retirement can be deteriorated seriously when savings are not enough. That is because social welfare system is not well organized in Korea. Secondly the portfolio ratio of asset and debt of household should be rearranged. The retired has the assets as the type of real estate. The decrease of real estate price since international finance crisis, pressed the households to change the type of their own asset. Thirdly government should prepare the beneficial policy to prevent the reduction of household's income. The aging phenomenon makes growth rate fall, which gives rise to the decrease of household income. In the long run, it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domestic investments. Fourthly, The financial system should work properly for the stabilization of financial market. The construction of stable system is necessary to make the retired participate in the financial market. Fifthly the policy for financial asset cum labor income should be provided. As the retirement savings is largely insufficient, the opportunity of reemployment should be given to the retired so that they

may compensate for the lack of the retirement savings.

Next the policy for financial industry is suggested as follows.

Firstly, a variety of financial commodities should be produced for the aging people, taking into account the trade-off relation between return and risk. Secondly, the proper return rate of financial asset should be kept. As interest rate is getting lower since international finance crisis, the return rate of financial asset is going down so fast. To maintain the proper return rate, the financial industry needs to reinforce the non-interest sector. Thirdly, the total service of asset management for the retired should be provided, integrating all kinds of asset they have into a single service. Fourthly, a way to invest on the financial industry in the other country should be sought. To raise the return rate which stay lower in the domestic market, it is necessary to take part in investing on the countries which lack financial infra-structure and need corporate finance by taking advantage of the Korean company already working ther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구조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인구구조 변화이다. 특히 베이비부머¹⁾세대가 서서히 현업에서 은퇴하면서 고령화에 편입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 간 급속한 노령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고령화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²⁾ 고령화를 점진적으로 경험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중국 등 동아시아권역 대부분의 국가들은 산아제한정책을 통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어 비록 현재 고령화단계가 낮더라도 경제·사회적 과급효과는 선진국과 다를 수 있을 것이다.³⁾ 2014년 현재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12.7%로 UN기준⁴⁾으로 이미 한국은 고령화사회(aging society)가 심화단계이며, 조만간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⁵⁾

이와 같은 급격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첫째, 저성장 기조가 정착될 것이다. 저출산 및 고령화는 생산가능 인구 비중을 떨어뜨려 노동투입에 영향을 미치고 저축률 및 투자율을 감소시켜 자본 축적 속도를 둔화시키기 때문이다. 둘째, 의료비 등 복지관련 정부지출 증가와 연금수지 구조의 악화 등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 한국전쟁이후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사람들로 한국에서 높은 인구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 강종구·김영준(2013), “인구고령화와 산업구조 간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경제의 분석』, 제19권 제3호, p.233

3) 김경수·유경원(2014), 『고령화가 가계부문 금융형태에 미치는 영향:OECD국가 패널을 이용한 분석』, p.3

4) UN은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을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인 인구가 7% 이상, 고령사회(aged society)는 14% 이상,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는 20%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5) 급격한 출산율(2013년 현재 1.19)의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한국의 고령화현상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가계소득이 감소할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면 노동수요가 감소하여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참가율도 하락한다. 이런 고용시장 상황은 결국 임금하락을 가져와 가계소득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가계소득 하락은 민간소비 침체로 이어져 다시 저성장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도 있다.⁶⁾ 넷째, 고령화는 소비 및 저축, 자산의 보유형태 등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와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및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상당수준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듯이 고령화는 거시경제 전반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고령화는 거시경제적 현상뿐만 아니라 개별 가계소득처럼 미시경제적 현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고령화가 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령인구의 노후자금 준비는 현재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이다. 이러한 노후자금준비는 청장년시기의 저축과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고령사회의 구성원인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대부분 퇴직 생활자이다. 퇴직 후 비정규직으로 재고용되거나 은퇴하기 때문에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하거나 아예 없다. 이에 따라 자신들의 소득 중 노동소득 비중이 급격하게 축소된다.

그러면 이러한 노령인구들이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소득은 어떻게 창출되고 있는가? 첫째,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기초연금이 소득의 기반이 된다. 둘째, 직업을 갖고 있는 동안 적립한 직장연금형태의 소득이다. 셋째, 청장년시절 저축한 예금, 주식과 채권 등 금융자산과 투자해 놓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활용한 자산소득이다. 노령인구들은 이런 소득의 합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제도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민연금⁷⁾ 형태의

6) 노형식·임진(2014),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한국금융연구원

7)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기초연금으로 노후자금을 충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또한 직장퇴직금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 그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기업이나 중견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개별사업자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금융상품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와 노후생활을 위해 어느 정도 규모의 금융상품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즉 노령인구의 선호체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상품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또한 기본적인 삶, 안정적인 삶 또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런 금융상품의 규모는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하는가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한 사회에서 고령화가 진전되면 실물부문에 생산가능인구 감소, 저축률과 투자율감소, 노동력의 양과 질의 감소, 경제성장률 둔화, 고령인구 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부족한 일자리, 부동산가격 하락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금융부문에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고령인구의 특성과 전반적인 저성장기조에 대응하여 고령자에 대한 우대금리 및 우대 수수료 적용, 신탁은행을 중심으로 한 자산관리 서비스와 생애주기에 맞춘 금융상품 출시 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는 경제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 논문은 이 중에서 고령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즉 한국사회가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금융상품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와 노후생활을 위해 어느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이다.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국가에서 월별 일정비의 돈을 관리, 감독, 지원 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관리한다. 그러나 월납부액의 9% 중에서 개인이 4.5%, 해당사업장이 4.5%를 낸다.

정도 규모의 금융상품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분석한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좀 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자료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고령화사회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에 따라 금융상품 선택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가를 기술한다. 또한 노후생활을 기본적인 삶, 안정적인 삶과 풍요로운 삶, 세 가지로 분류하고, 현 금융시장의 이자율 및 수익률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금융자산규모가 필요한지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근거를 바탕으로 조만간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베이비 붐 세대들의 노후자금 준비상태를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를 근거로 적어도 고령인구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한 젊은 세대들이 그들의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 어떤 금융상품이 유효한지를 제시한다.

제3절 논문의 구성

먼저 서론 부분에서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 방법 및 범주에 대해서 밝힌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고령화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다. 한국 고령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기술한다. 이런 특징을 찾기 위해서 인구구조 관련 통계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유소년 부양비, 노년부양비, 기대수명연장, 출산율과 연령별 미혼률의 지표를 사용한다.

제3장에서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어떻게 금융상품의 형태에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살펴본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류에 따라 노령인구의 삶의 형태를 기본적인 삶, 안정적인 삶과 풍요로운 삶으로 구분하여 현재 한국의 금융시장 상황에서 각 삶을 위한 적정 가계소득이 얼마인가를 추정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현재 고령인구의 준비된 노후자금을 얼마이고 이에 따라 각 삶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금융자산이 필요한지를 추정한다. 또한 이것은 앞으로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어떤 형태의 금융상품이 유효한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

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고령화진전에 따른 금융변화를 특징에 대해서 기술한다. 즉 고령화인구는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체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3장에서 분석된 결과와 제4장에서 기술된 특징을 결합하여 고령인구가 노후자금 마련하여 적어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5장은 이런 분석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제2장 한국의 고령화 현황

제1절 고령화 사회의 진행현황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2012년 기준 81.94년이며 해마다 노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1>에서 보듯이 인구 구성비에 대한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⁸⁾, 2014년 현재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12.7%로 2000년 7.2%와 비교하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표 2-2>에서 보듯이 인구 고령화를 이미 경험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UN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은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은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국가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3개국이지만, 2020년이면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포르투갈, 불가리아, 그리스 등 13개국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한국, 영국, 미국, 뉴질랜드 등 34개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2-1. 인구 및 고령화 전망 추이 (2000~2050)

구분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총인구(천명)	47,008	48,138	49,410	51,435	52,160	48,121
유년인구비중(%)	21.1	19.2	16.1	13.2	12.6	9.9
고령인구비중(%)	7.2	9.1	11.0	15.7	24.3	37.4

자료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8) 2014년 통계청 보도자료

표 2-2. 주요 국가별 인구 고령화의 진전

구분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고령사회도달	초고령사회도달
	7%	14%	20%	7%→14%	14% →20%
일본	1970	1994	2006	24년	12년
독일	1932	1972	2009	40년	37년
이탈리아	1927	1988	2008	61년	20년
미국	1942	2015	2036	73년	21년
프랑스	1864	1979	2018	115년	39년
한국	2000	2017	2026	17년	9년

자료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에 이르러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20.8%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전체 인구수 중에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것은 베이비 붐세대 이후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에 따른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과 의료기술 등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 특히 기대수명 증가보다는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이 더 고령화사회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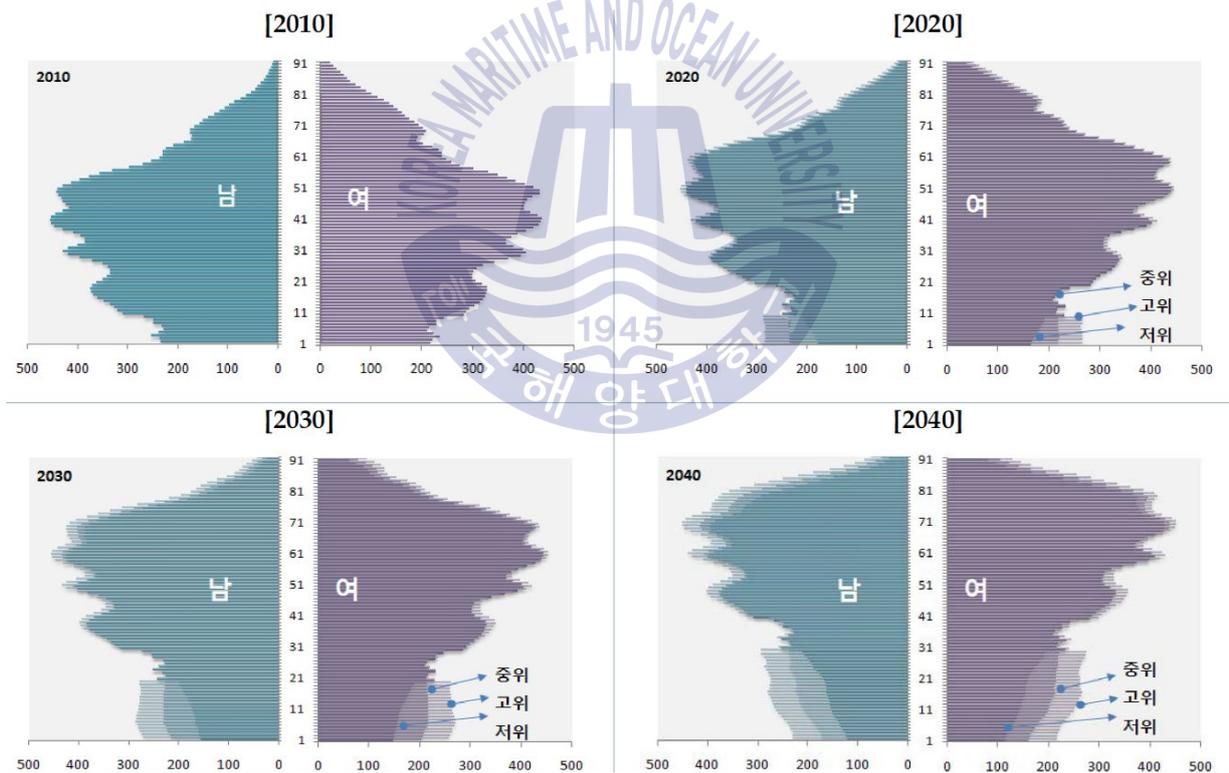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2031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표 2-1>을 살펴보면 2030년에 총인구가 가장 많은 52,160 천명으로 최대 인구수에 도달하고, 2020년부터 고령인구의 비중이 유년인구 비중을 추월하며, 2000년에 7.2% 였던 고령인구의

9) 김경수·유경원(2014), 전제서, “인구구조의 동태변수인 고령화의 속도는 이와 같은 수준변화는 달리 출산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대수명의 변화는 이와 같은 65세 이상 인구비중의 증가율을 설명하는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19

비중이 2030년에는 24.3%, 2050년에는 37.4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의 고령화 추세와는 달리 불과 26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표 2-2>에 보듯이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이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70년 이상이 소요된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고령화는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와 출산율 하락에 따른 유소년 인구의 감소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진 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인구 증가와 출산율 감소에 따른 유소년 인구의 감소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 성 및 연령별 인구피라미드, 2010~2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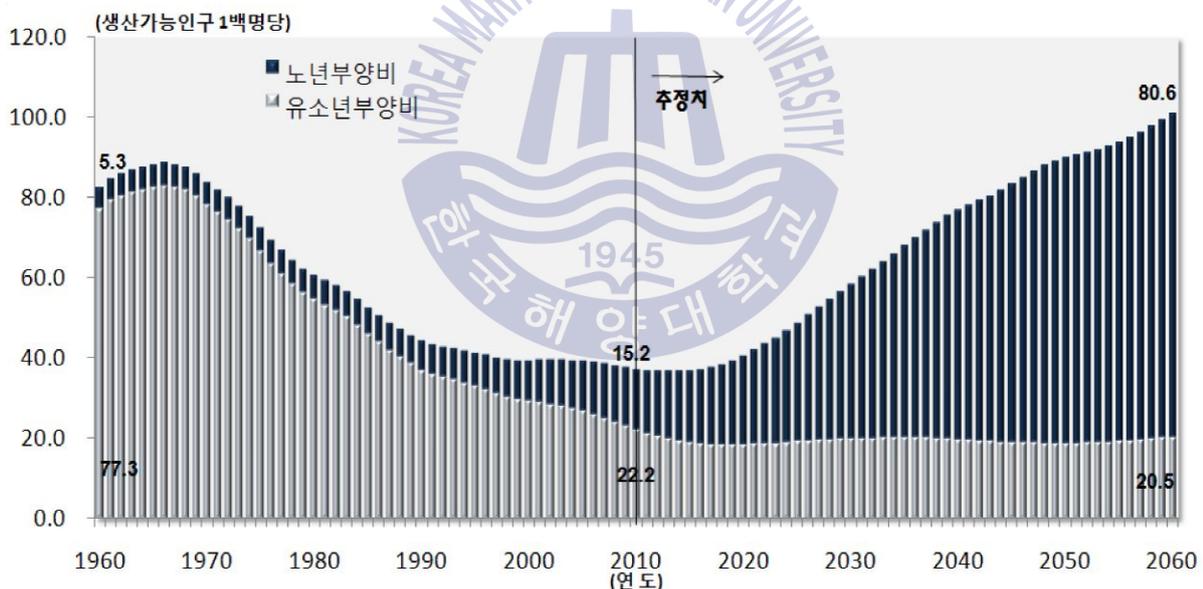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그림 2-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100만 명 이상의 베이비부머 세대와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피라미드 형태에서 항아리형태(2010

년)로 변화했다. 통계청자료(2011)에 의하면 2030년까지는 항아리형태가 유지되지만 60대가 인구구조의 중심축이 되면서 허리가 조금 높아진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고령화가 진전된 형태를 보이게 되고, 25세의 인구비중은 매우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 1백명 당 총부양 인구는 <그림 2-2>에서 보듯이 2012년 36.8명에서 2040년에는 77명, 2060년에는 101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의 2060년의 경우 95.7명에 비해 큰 규모이다. 1960년에는 유소년부양비 비중이 77.3이고 노년부양비는 5.3에 불과했지만¹⁰⁾ 2010년 유소년부양비는 22.2, 노년부양비는 15.2로 거의 비슷한 숫치를 보이고 있다. 2060년에는 노년부양비가 80.6으로 유소년부양비를 크게 앞서고 있다.

그림 2-2. 유소년 부양비 및 노년 부양비, 1960~2060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고령인구의 증가는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데 비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른 저축의 하락으로 인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미 초

10)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돌보는 부양비율은 둘로 구분된다. 하나는 0세에서 14세 인구를 부양하는 유소년 부양비, 65세 이상 인구를 부양하는 비율인 노년부양비라고 한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는 독일, 일본, 이탈리아 3개국인데 이중 독일만이 유일하게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이 초고령사회임에도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의 하나는 독일의 높은 가계 순저축률에 있다. 일본과 이탈리아는 2000년대 이후 가계 순저축률이 급락하고 있는데 비해 독일의 가계 순저축률은 1990년대 이후 9~10%대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계 순저축률이 어느 수준인지, 고령화 사회의 구성원인 노령인구가 선호하는 저축상품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바라보는 젊은 세대들은 그들의 노령 시기에 대비하여 어떤 상품에 주력하는 지에 대하여 이번 연구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며, 금융기관과 정부는 어떤 상품을 유도하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기대수명과 출산율변화에 따른 고령화 현상

앞서 우리나라의 초고속 고령화의 이유에 대하여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인구 증가와 출산율 감소에 따른 유소년 인구의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특징에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출산율저하가 기대수명 연장보다 한국의 고령화를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앞서 설명하였다.

표 2-3. 합계 출산율, 2005~2014

(단위 : 천명, 가임여자 1명당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출생아 수	435	448.2	493.2	465.9	444.8	470.2	471.3	484.6	436.6	435.4
합계 출산율	1.076	1.123	1.250	1.192	1.149	1.226	1.244	1.297	1.187	1.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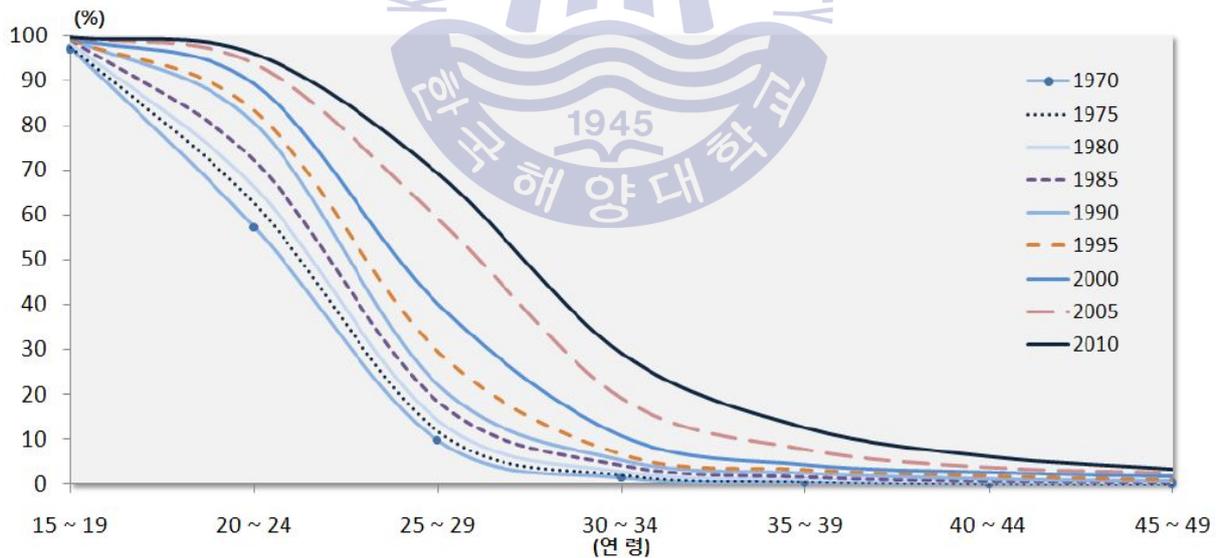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14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 출생통계』

표 2-4. 연령별 미혼율

연령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미혼율 (%)	15~19	97.1	97.4	98.2	99.1	99.5	99.2	99.3	99.6
	20~24	57.2	62.5	66.1	72.1	80.5	83.3	89.1	93.7
	25~29	9.7	11.8	14.1	18.4	22.1	29.6	40.1	59.1
	30~34	1.4	2.1	2.7	4.2	5.3	6.7	10.7	19.0
	35~39	0.4	.7	1.0	1.6	2.4	3.3	4.3	7.6
	40~44	0.2	0.3	0.5	0.7	1.1	1.9	2.6	3.6
	45~49	0.1	0.2	0.3	0.4	0.6	1.0	1.7	2.4
평균초혼연령(세)	-	-	-	-	24.8	25.4	26.5	27.7	28.9

자료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그림 2-3. 연령별 미혼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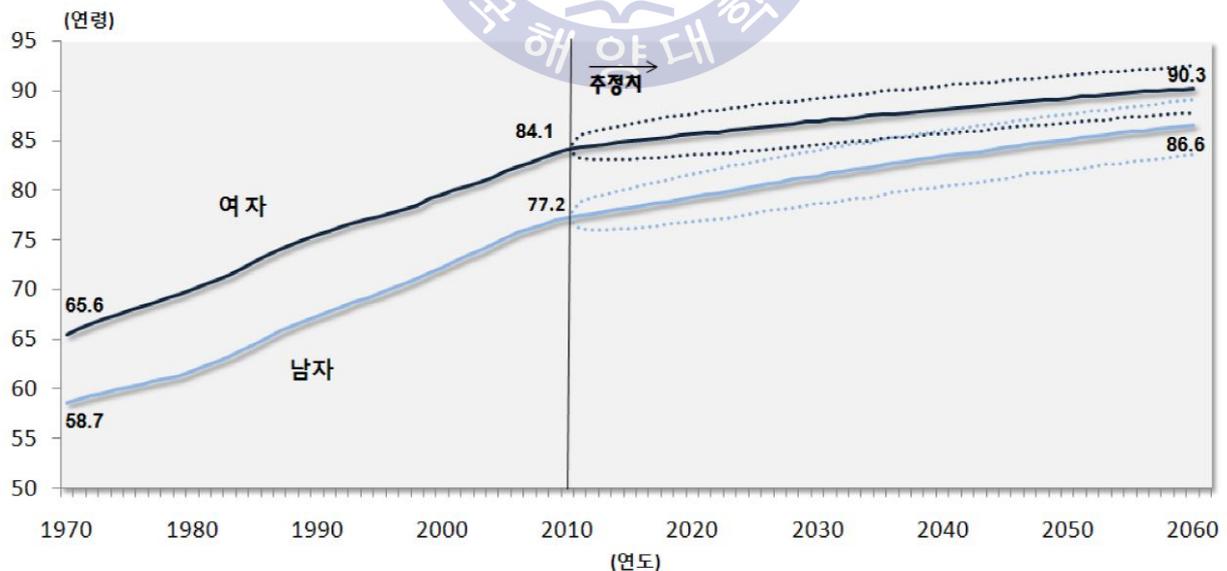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 현황을 살펴보면 <표 2-3>에서 보듯이 2005년 1.076명에서 최저점을 보인 이후 2014년 1.205명 까지 출산율이 낮은 수치 내에서만

작은 변동이 있을 뿐 뚜렷한 증가 추세는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통계조사 시작된 1970년 4.54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출생율의 급격한 감소는 베이비붐세대의 피라미드 구조에서 역삼각형 구조로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의 저하 외에 출산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또 하나의 사회적인 변화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4>와 <그림 2-3>에서 확인할 수 있듯 미혼율과 초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대 후반의 미혼율은 1995년 29.6%에서 2010년 69.3%로 5년 마다 10%p 씩 증가하고 있다. 평균초혼연령은 1995년 25.4세에서 2010년 28.9세로 5년마다 약 1세 씩 상승하고 있다. 여기서 <표 2-4>에서 보듯이 2000년대 초반 이후에 나타나는 출산율의 소폭 상승의 원인이 평균출산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당시 30~40대 여성들의 지연된 출산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평균출산연령과 출산율이 소폭 동반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평균초혼연령과 미혼율, 그리고 평균출산연령의 상승은 결과적으로 반드시 출산율의 감소를 가져올 현상들이다.¹¹⁾

그림 2-4. 가정별 기대수명, 1970~2060



자료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11)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그림 2-4>는 2010년까지의 기대수명과 2060년까지의 가정별 기대수명을 보여주고 있다. 유소년 인구 및 고령층의 사망이 감소함에 따라 기대수명은 2010년까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70년과 비교하여 2060년 중위 가정의 여자의 기대수명은 24.7세, 남자는 27.9세 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이후 기대수명의 증가폭은 전에 비하여 상당히 줄었지만 지속적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측면에서 출산율의 저하 문제와 함께 우리나라의 고령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제3장 고령화와 금융형태 변화

제1절 선행연구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투자행태 변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런 연구의 바탕은 대부분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othesis)에 두고 있다. 이 가설에 따르면 개인은 청장년기까지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을 기반으로 저축 또는 투자를 늘리다가 노년기에 축적된 부를 소비하게 된다. 즉 노년기의 불확실성과 감소에 대비해서 청장년기에 예비적인 저축과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생동안 개인이 보유한 자산의 크기는 역U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이다.¹²⁾ 국내의 고령화와 관련한 금융형태에 관한 연구도 이런 생애주기가설을 크게 뛰어 넘지 않는다. 최근 급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 사회에 발맞추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일국(2006)은 고령화 문제가 우리 경제의 중요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고령인구의 증가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저축 및 자산구성의 변화, 연금개혁, 자본시장, 국제금융시장에의 참여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현실진단과 분석 결과 고령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국내 금융이 준비해야 할 정책적인 노력을 첫째 은퇴이후의 노후소득 마련을 위해 개인들의 저축과 자산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자산운용 기관들의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자본의 유출입이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글로벌 투자세대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해외로의 자본투자에 관심을 가져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여 고수익율을 위한 적극적인 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2) 우리나라의 가계금융조사자료를 보면 55세-60세에 자산규모가 4억 1,686만원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것은 한국의 퇴직연령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일생주기가설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성욱·이규복(2013) 참조

김향숙(2008)은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고용안정성 약화와 연금기능의 미흡으로 노령인구가 노후소득 불안정으로 생활비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해 역모기지 활성화 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통계청 자료 등을 통하여 국내 역모기지 제도의 실태조사 및 실증분석을 통하여 역모기지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택연금의 정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주택상속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역모기지의 성공적인 정착이 대규모 재정지출 없이 노인 생활보장 및 주거안정을 달성하는 복지정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 될 것으로 보았다.

김원식(2011)은 연금제도는 어떤 제도보다 신뢰와 성실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정착되지 못한다면, 국내의 연금상품은 시장에서 소멸될 것이고, 국내 연금시장은 외국기업에 의해서 독과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방지하고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세제도의 변화, 글로벌 자본시장의 변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등 많은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확대와 다층연금시스템의 구축,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연금시스템의 신뢰확보를 강조하였다. 퇴직연금 및 민간연금시장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 하였다.

김주희(2011)는 실버계층의 소비 스타일 분석 연구를 통하여 식사생활과 취미생활, 일상생활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노인들의 연령, 주거지역, 직위에 따른 인간관계의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노인들의 학력, 건강상태, 종교에 따른 금융상품선호도를 조사하여, 노인들의 소비스타일, 인간관계, 금융상품 유형 선호도가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금융상품의 유형이 노인들의 소비스타일을 고려한 21세기형 노인주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상품제도 의무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실버계층 소비자와 향후 10~20년 후에 노년층 대열에 합류할 예비 실버계층의 금융 소비자로서의 소비행동 및 구매태도를 파악하여 향후 실버금융 소비자 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예비실버계층과 실버계층을 위한 금융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였다.

백은영(2013)은 고령화 사회 진전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중고령층 금융소비자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중고령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이용 현황과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어떠한지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총 417명의 50대 이상 중고령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현재 재무상태, 금융기관 이용현황 및 금융상품 보유와 향후 보유하고자 하는 금융상품 및 선호하는 금융서비스 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중고령 금융소비자들은 자산 보유 수준에 있어서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많은 중고령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이용에 있어서 중고령 금융소비자들은 이용 편의성에 더 주안을 두고 있으며, 금융기관 직원을 통해 금융상품이나 투자정보를 얻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은행과 같은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과 거래하는데 익숙하며, 주로 예금 위주로 거래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시대의 주요 금융주체가 될 중고령층 금융소비자들의 자산배분 현황과 금융지식 및 금융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더 나은 금융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향후 금융기관의 주요 잠재 고객인 중고령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이용 및 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경영전략 방향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박성욱·이규복(2013)은 생애주기별로 소득수준이나 지출요소들이 다르다는 전제하에 특정 연령층의 비중이 높아지면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규모나 포트폴리오 구성변화가 발생한다는 관점을 설정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국내자산과 해외자산으로 구분하여 한 나라의 금융자산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였다. 2000년대 39개국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중장년층의 비중이 많으면 해외주식의 보유비중이 커서 자산의 자국편중현상이 약해진다는 분석결과를 얻었다.

김경수·유경원(2014)는 고령화 진행이 국가별로 상이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것이 가계부문 금융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OECD국가 패널자료(1980-2010)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령화의 수준과 속도 모두 가계부문 순저축률과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비율, 그리고 위험자산보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국가별로 고령화단계 내지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빠른 고령화진전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가계 순저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아울러 순금융자산 보유수준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노형식·임진(2014)은 고령화가 은행의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국가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시행되었다. 또한 은행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은행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시행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령화현상에 대해 은행산업의 기회요인과 위기요인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였다. 기회요인으로 퇴직연금 및 연금신탁상품 개발, 은퇴자 대상상품 및 자산관리 비즈니스 전략을 제시하였다. 반면 위기요인으로 이자수익자산의 적정 수익률 확보문제, 비이자부문 수익관리문제와 해외업무역화강화방안이라고 지적하였다.

박수현(2014)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저축, 소비와 투자의 감소 등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낮추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하였다. 금융부문의 안정적인 기반구조가 취약한 경우에는 고령화 문제가 금융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유는 저축증가가 소비스무딩 (consumption smoothing)으로 이어질 수 없는 한계 때문이다. 현재의 고령화 추세를 단순히 연기금 문제와 같이 기존의 틀에서 파악하기 보다는 고령화와 이에 수반되는 여러 변화의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고령화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저축, 자본수요의 변화, 등 자산운용산업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금융상품의 개발 사례를 살펴본 후, 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화 시대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상품의 대응 방안을 찾아보았다. 연금상품은 장기간의 투가가 유리한 만큼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청·장년기에 시작하여 투자기간

을 장기간으로 하고 적립식의 방법으로 투자시기를 분산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최정일·안창용(2015)은 향후 고령화에 따라 노후를 대비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고령화 현상을 파악하고 노후보상체계로서의 국민·퇴직·개인연금 가입현황을 살펴보았다. 이것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애중심 재무설계, 은퇴 단계별 솔루션 제시, 주택금융의 활성화 및 다양한 융·복합 은퇴설계 상품의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령화진전에 따라 이것이 금융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주로 생애주기가설을 바탕으로 은퇴자의 자산관리나 금융산업의 수익률관리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노령자는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현재 금융시장 상황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고령화가 한국의 금융상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2절 고령화와 적정 가계소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4년)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40세 이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은 임금근로자가 52세, 자영업자와 같은 비임금근로자가 53세로 나타났다. 또한 그 연령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¹³⁾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평균정년이 65세인 대다수 유럽국보다 10년 이상 빠른 셈이다. <그림 3-1>에서 보듯이 각국의 자영업자 비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상위 5개국에 포함될 정도로 높다. 이것은 퇴직 고령인구들의 가계소득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이러한 노후 가계소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금융산업의 주 업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13) 중앙일보, 2015.5.6. 노동계는 통계청 발표를 근거로 “기업들이 2016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제도에 맞춰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마구잡이로 해고하고 있다”며 ‘해고 쓰나미’를 주장했다.

이것을 경제주체별로 노후 가계소득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차원에서 사회보장의 기초인 사회보험에 속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개인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거의 없다.¹⁴⁾ 기업차원에서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 기업연금이 있다. 개인 차원에서는 기초연금과 기업연금 외에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행위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민영보험인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과 간병보험, 일반은행과 지방은행, 투자신탁, 회사의의, 개인연금, 최근에 일부은행권에서 제한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역모기지론 등이 이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¹⁵⁾

표 3-1. 각국 자영업자 비율

2013년 순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OECD평균		16.1	15.8	-	-
1	그리스	35.1	36.1	36.6	36.9
2	터키	39.1	38.3	37.1	35.9
3	멕시코	34.7	33.7	33.7	33.0
4	한국	28.8	28.2	28.2	27.4
5	이탈리아	25.5	25.2	25.1	25.0

자료 : 기획재정부 국회제출자료(2014) 'OECD 자영업자 비율'

노후생활자금원 확보 방법으로 청장년시기부터 국민연금과 공적연금, 각종 연금보험 등으로 일종의 저축하는 형태이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에 맡기기보다는 법적 근거 하에 강제성을 띠는 사회보험형태로 대부분 이루어진다. 그러나

14) 국민연금은 개인과 사업장이 각각 반분하고 공무원, 군인연금은 정부가 고용한 공무원과 군인에 대해서만 부담한다.

15) 한국은행,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선택 결정요인", 금융경제연구원, 2004년 6월. 국민연금관리공단(2002) 「노령연금수령자」.

운영하는 과정에서 평균수명의 연장과 연금재원의 고갈로 완전노령연금의 지급 시기가 점차 늦추어질 전망이다.

종업원의 퇴직 후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된 퇴직연금과 기업연금도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에 의한 명예퇴직과 조기퇴직 등으로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상황이다. 이렇듯 정부에 의한 기초연금과 기업에 의한 기업연금 등이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어 고령인구의 노후자금마련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자구 노력에 의한 노후준비가 미약한 상태이므로 공적연금에 의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더더욱 노후자금의 불안정성은 가중될 것이다.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도시화,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전과 함께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 부부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핵가족화로 변화하면서 사회에서 자기책임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각종재해와 성인병의 증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고령자 금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¹⁶⁾

최근 통계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 공사자료를 참고한 예시에 의하면 <표 3-2>에서 보듯이 은퇴 후 노후 생활수준이 기본적인 삶(기초생활비+의료비)을 위해서는 월 생활자금이 150~200만원, 사회활동까지 포함한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월 300~350만원,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월 500만원 이상의 생활자금이 필요하다고 내다보았다.

<표 3-2>에서 보듯이 기본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노후자금은 생활비, 건강검진비와 의료비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인 삶을 위한 노후자금을 연간 2,400만원(월소득 200만원)으로 가정하고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금융자산이 필요한지를 추정해보자.

16) 김주희(2011), “실버계층의 소비 스타일분석을 통한 금융마케팅 전략”,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표 3-2. 노후필요자금예시

은퇴후 노후생활 수준 예시		1. 기본적인 삶	2. 안정적인 삶	3. 풍요로운 삶
		은퇴후 월 생활자금 150~200만원 (기초+ 건강)	은퇴후 월 생활자금 300~350만원 (기초+ 건강+ 사회)	은퇴후 월 생활자금 500만원 이상 (기초+ 건강+ 사회+ 품위)
기초 생활	생활비	1,380만원 (115*12개월)	1,920만원 (160만원*12개월)	2,760만원 (230만원*12개월)
건강 관리	건강 검진비	60만원 (30만원*2인)	100만원 (50만원*2인)	200만원 (100만원*2인)
	의료비	504만원 (42만원*12개월)	504만원 (42만원*12개월)	504만원 (42만원*12개월)
사회 활동	정조사 /모임비		600만원 (50만원*12개월)	1,200만원 (100만원*12개월)
	차량 유지비		300만원 (25만원*12개월)	420만원 (35만원*12개월)
	여행비		298만원(동남아)	990만원 (동남아+ 유럽)
품위 유지	레저 활동비			600만원 (25만원*2인*12개월)
합계		월 160만원 (연 1,940만원)	월 310만원 (연 3,720만원)	월 550만원 (연 6,67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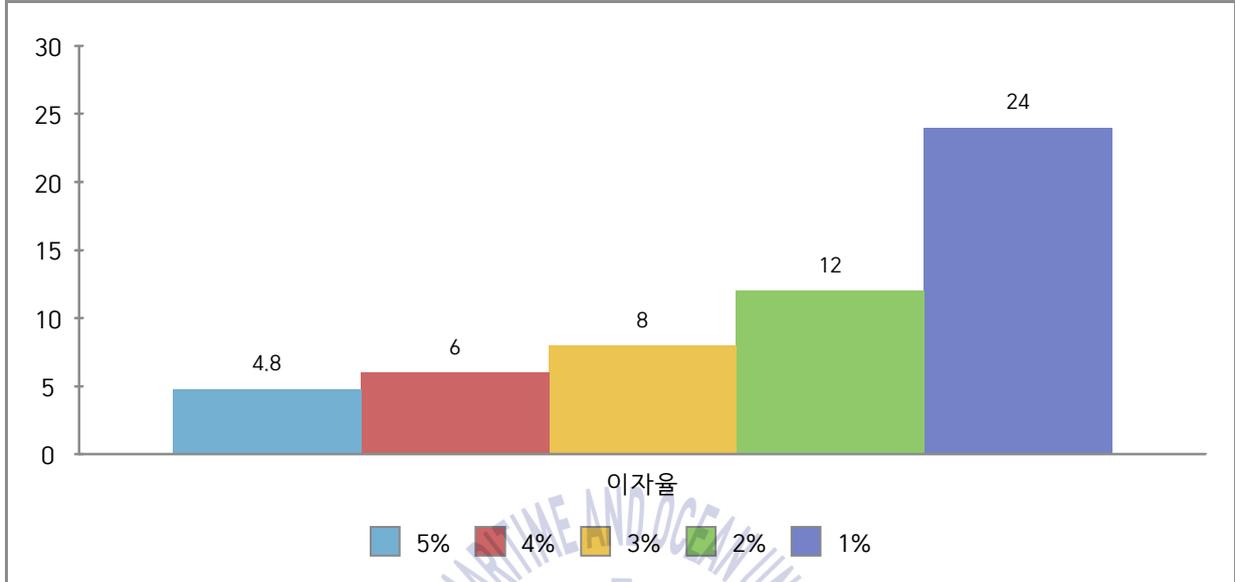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외

<그림 3-1>은 이자율은 1%에서 5%까지 각각 월이자수익 2백만원을 받을 때 마련해야 할 금융자산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이자소득세 차감 전 1년 단리를 적용하였을 때, 5%의 이자율 수준에서 연간 24,000,000원의 생활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억 8천만 원이라는 자금이 필요하다. 4%에서는 6억 원, 3%에서는 8억 원, 그리고 2%에서는 12억 원, 1%일 때 24억원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다. 현재 2015년 11월 우리나라 평균 금리수준이 1.5% 라는 것을 감안할 때 노후에 기본적인 삶을 영유하기 위한 필요한 축적자금이 거의 18억 원 수준으로 대단히 큰 규모인 것을 알 수 있다. 안정적인 삶을 위한 노후자금이 월 3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대략 31.5억원(18억원x1.75), 풍요로운 삶을 위한 노

후자금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대략 45억원(18억원x2.5)이 계산된다.

그림 3-1. 월 이자 수익 2,000,000원을 위한 이자율 별 자산규모

(단위 : 억 원)



주 : 이자소득세 차감 전, 1년 단리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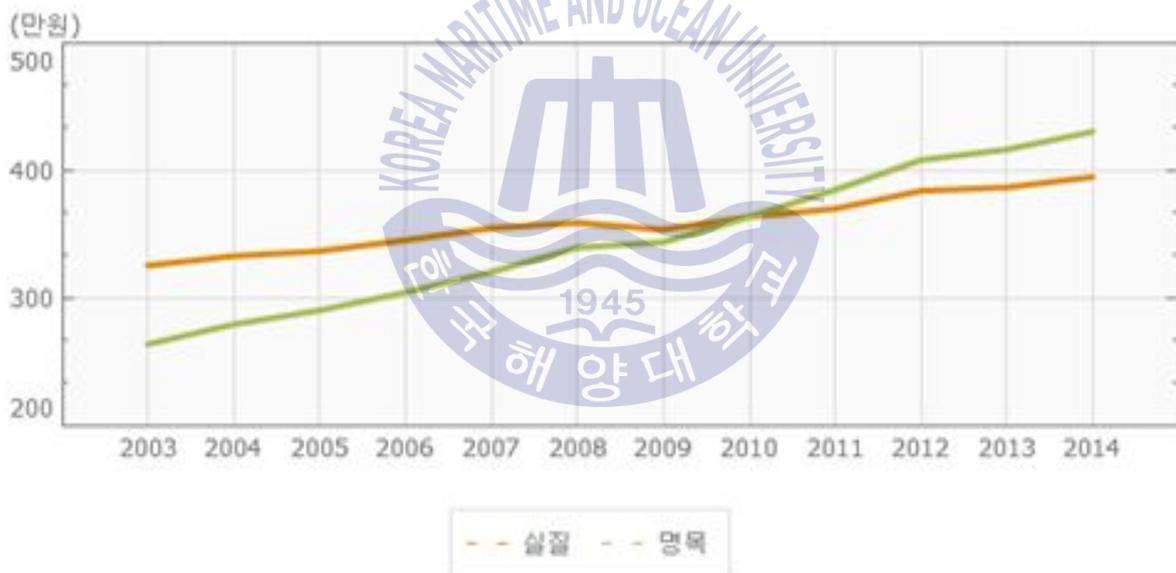
그렇다면 근로자의 평균년수를 30년으로 상정하고 근로소득으로 이런 노후자금마련을 위해 적금을 이용하려 한다면 납입해야하는 금액을 추정해보자. 앞에서 계산한 기본적 삶을 위한 목표자산을 마련하기 위해 각 이자율별로 30년 동안 월별 납입금을 과세전과 과세후를 함께 계산하여 정리한 것이 <표 3-3>과 같다.

표 3-3. 목표자산달성을 위한 30년간 월 납입금액

이자율	5%	4%	3%	2%	1%
목표자산	4.8억 원	6억 원	8억 원	12억 원	24억 원
납입금 (비과세)	760,899	1,040,583	1,531,247	2,562,460	5,795,002
납입금 (일반과세 15.4%)	814,865	1,104,447	1,608,258	2,657,090	5,914,085

먼저 이자율이 5% 일 경우에 4억 8천만 원 자금을 30년간 축적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단리 기준으로 월 760,899원의 납입금을, 일반과세 15.4%를 포함하면 월 814,865원의 납입금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 제1금융권 적금이자 1.75~2% 수준임을 생각할 때 노후 필요자금 12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30년간 월 비과세 기준 2,562,460원 일반과세 기준으로 2,657,090원을 지불하여야 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밝힌 2014년 월 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 전후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 월 소득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적금에 납입해야 하는 것이다.

그림 3-2. 월평균 명목 및 실질 가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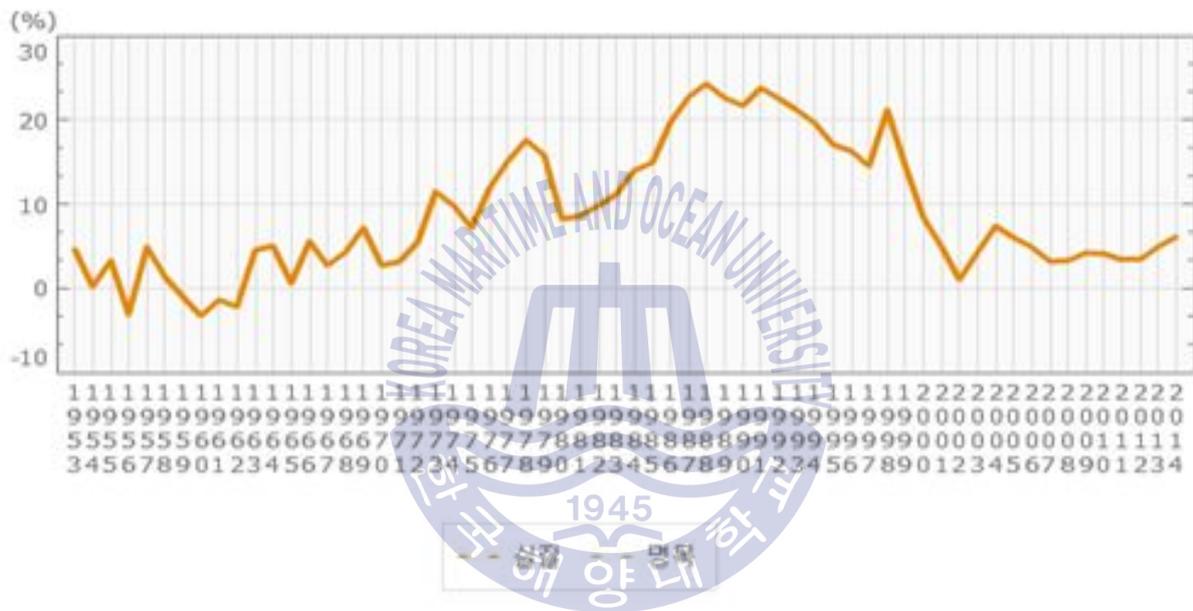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국민계정에서 개인부문의 저축성향과 재정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로서 가계자산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 개인순저축률을 살펴보면 한국의 개인순저축률은 2014년 기준으로 6.1%이다. 이는 개인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하락과 가계소득 중 조세, 연금, 사회보험료 등의 공적 비소비지출과 이자

비용, 가구 간 이전 지출 등 사적 비소비지출을 포함하는 비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개인의 저축여력이 감소했고, 저금리로 인해 저축에 대한 유인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¹⁷⁾

실제로 개인들의 월평균소득이 400만원이므로 월 순저축은 24만원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삶을 위한 납입금의 10%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림 3-3. 개인순저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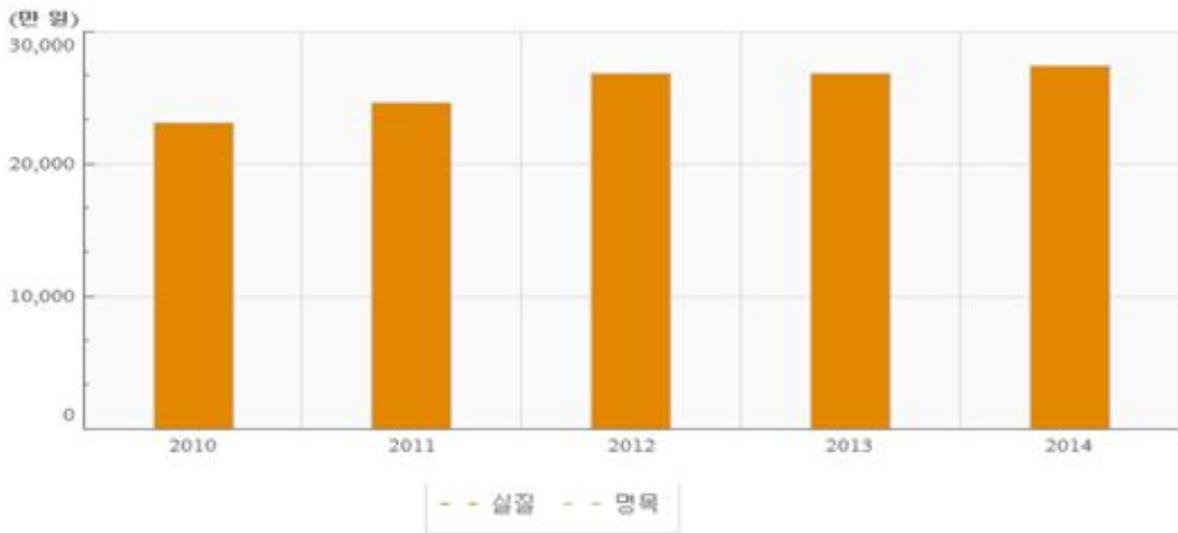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이와 같은 상황을 자산규모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3-4>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가구 평균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4년 2억 7,37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수치도 노후 기본 생활을 영유하기 위한 12억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 한국의 가계 저축률은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2012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저축률은 3.8%로 미국(5.8%), 독일(10.3%), 호주(10.5%)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그림 3-4. 가구 순자산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연금현황을 살펴보자. 국내 근로자의 지난해 평균 퇴직 연령은 52.6세로 나타났다. 더욱이 퇴직한 근로자 10명 중 9명은 월평균 25만4000원의 연금을 받았다. 평균 227만원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다. 55~79세 가운데 연금을 받는 사람은 45.7%인 519만8000명이다. 이 가운데 92.4%(480만2000명)가 월 15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는다. 이들의 월평균 수급액은 25만4000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7.6%에 해당하는 사람이 월평균 245만5000원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연금의 10배 가까운 액수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공무원연금을 받는 조건인 20년 이상 가입자를 추리면 최고액 수급자가 17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200만원 넘게 받는 사람이 전체의 54.6%에 달한다.

앞의 기준을 활용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의 55%정도는 연금을 통해서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업 퇴직자는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노후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¹⁸⁾

18) 퇴직 후 기본생활이 충족될 만큼 노후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고용되는 경우가 많다. 55~64세 고령자 가운데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213만6000명이다. 이는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중 34.8%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58세였다. 연금수급액이 많을수록 고용률은 현재

제3절 고령화와 금융형태

국내 고령자 금융의 발전과정은 공영보험과 민영 보험사의 연금보험, 은행권과 투신권의 개인연금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공영보험은 4대 연금으로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2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1975년) 국민연금(1988년)을 말한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실버산업은 금융부문에서 시작되었다. 즉 1980년대 초창기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 판매에서 출발하여 최근에는 시중은행과 각종 보험사에서 고령자 대상의 각종 실버금융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품들은 여유 있는 노후의 생활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운용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의 순으로 운용이 되고 있다. 특히 여기서 고령자의 자산 운용원칙은 최우선적으로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안정성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는 상품이어야 한다. 둘째 비과세나 세금우대의 절세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셋째 연금이나 보험 자산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닌 <그림 3-7>과 같이 다함께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금융상품의 분류

실버산업 중 금융분야는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금융상품의 종류에는 우선 사회보험 성격의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인 공무원,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있다. 그 외 금융상품은 <표 3-4>에서 보듯이 기업보장과

하게 떨어진다. 연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사람은 45.7%가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150만~300만원 수령자는 35.8%, 300만원 이상 수령자는 28.8%만 일터를 지킨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주된 연금의 종류를 구분해서 연금수급액의 격차를 따지고, 그 원인을 분명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 한편에서는 특히 외국처럼 연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대신 일하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과 연금 개혁을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개인보장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보장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신탁제도와 매월 연금형태로 받는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과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가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이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를 미리 정하고 기업은 이를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한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급여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¹⁹⁾ 이것의 차이점은 <표 3-4>와 같다. 개인퇴직계좌는 운영구조는 기본적으로 확정기여형과 동일하다.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금규약을 생략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퇴직연금제도를 간편하게 도입하도록 한 제도이다.

<표 3-4>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퇴직급여->임금상승과 연계	퇴직급여-> 투자수익과 연계
회사부담금-> 변동	회사부담금->고정
투자책임->고용주	투자책임->직원
퇴직부채평가->필요	퇴직부채평가->불필요

자료 : HR Insight(2013.12), www.mercer.co.kr

개인보장 금융상품은 1994년 6월부터 시행한 개인연금신탁에서부터 개인연금보험, 즉시보험, 보장성보험과 기타서비스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최

19)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시 기업이 부담한 금액과 운용결과를 합한 금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근에는 급속한 고령화에 맞춰 실버시장의 잠재고객 중,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실버금융상품들을 앞 다투어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실버금융상품으로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연금보험과 변액보험, 변액 유니버설 보험 등이 있다. 퇴직금이나 배당금등의 목돈을 일시납으로 신탁해 두고 일정기간 노후생활자금을 지급 받는 노후생활 연금신탁과 일반은행의 연금신탁상품, 적립식, 거치식, 경로우대 정기 예금, 적금, 역모기지론 등의 금융상품과 은행과 보험사가 연계하여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상품 등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²⁰⁾

표 3-5. 기업·개인보장 실버금융상품의 분류

구분	형태	종류 및 특징
기업 보장	퇴직신탁(보험)	·퇴직일시금제도 ·2005년 12월부터 신규가입 불가 ·은행권에서는 퇴직신탁, 보험사에서는 퇴직보험으로 통칭
	퇴직연금(보험)	·퇴직연금제도 ·2005년 12월부터 시행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A)
개인 보장	개인연금신탁	·1994년 6월 도입된 실적배당형 신탁상품 ·2001년부터는 연금신탁으로 판매 ·은행, 투신(증권)사에서 판매
	개인연금보험	·개인연금신탁과 상품내용 대동소이 ·보험사에서 판매
	즉시연금	·은행권의 즉시연금신탁 ·보험권의 즉시연금보험
	보장성보험 (실버보험)	·중신보험, 질병보험, CI보험, 상해보험, LTC보험
	기타 실버금융상품	·세금혜택(비과세 생계형 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부여된 예금 등 ·건강검진, 여행수속대행, 원로대학운영 등의 부대서비스를 겸한 실 버금융상품 ·적립식펀드 등 직·간접투자상품, 변액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대출	·역모기지론
	서비스	·자산관리 및 상속설계 서비스 등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20) 보험개발원(2003)“퇴직연금시장의 전망과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2. 금융상품의 가입현황과 추이

금융상품의 종류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각종 연금과 보험 및 금융상품 등 다양하다. 여기서는 고령화와 관련성과 규모를 판단하여 주택연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1)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주택연금은 모기지의 반대(역모기지) 개념으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매월 분할 지급받고, 대출 원리금은 계약 종료 또는 사망 시에 주택을 매각하여 일괄 상환하는 제도이다. 즉 모기지는 장래소득을 기초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지만, 주택연금은 주택을 기초로 고령자의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운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60세 이상이어야 하고, 담보대상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으로 실제 거주용이어야 하며,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시가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이어야 한다. 이때 월지급금 규모는 대상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의하여 결정되며, 대상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대출규모가 커지는 구조이다.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3억 원의 주택일지라도 60세에 가입하면 월 72만 원의 월지급금을 받지만, 65세가 가입하면 86만 원을 받고 70세에 가입하면 월 103만 원의 지급금을 받는다.²¹⁾

<표 3-7>에서 보듯이 2015년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는 3,0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72명) 보다 24.0% 증가했다. 또한 6월 주택연금 가입자는 551명으로 전년도 6월(394명) 보다 39.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7월 주택연금 출시 이후 총 가입자는 2만 5,699명에 달했다. 또한 주택연금

21) 정은보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주택연금의 역할” 주택금융월보

수요실태조사(2012~2014년)에 따르면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령층은 소득이 100만원 증가할수록 소비는 80만원 늘어난 반면, 근로소득이 있는 고령층은 소득이 100만원 많아지면 소비는 68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자리 잡으며 소비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그림 3-5> 참조).

표 3-6.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중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

(단위: 만 원)

연령 \ 주택가격	1억원	3억원	5억원	9억원
60세	24	72	120	216
65세	28	86	143	258
70세	34	103	173	310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자의 주택가격은 2014년도 평균 2억 7,300만원에서 올 상반기 2억 8,100만원으로 약 2.9%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6%(3억 1,200만원->3억 2,000만원), 지방이 6.1%(1억 7,900만원->1억 9,000만원)증가해 지방의 담보주택가격 상승세가 뚜렷했다. 또한 주택연금 평균월지급금은 2013년 91만원, 2014년 94만원, 2015년 99만원으로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였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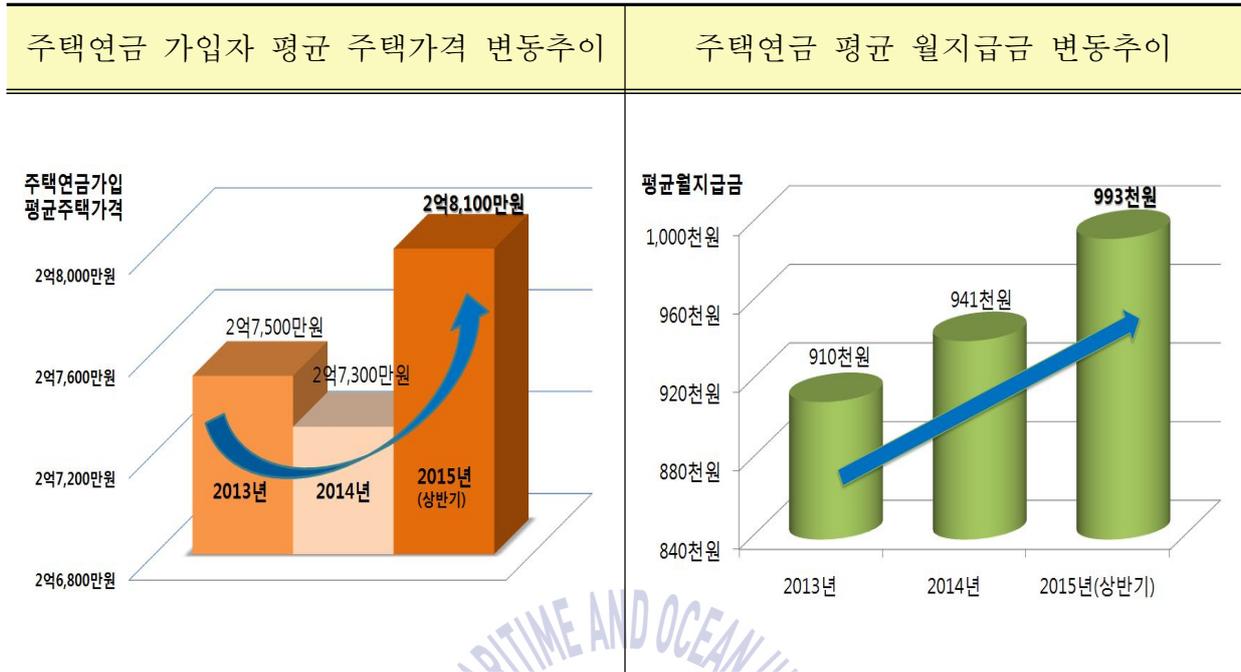
표 3-7. 주택연금 가입자 수 및 상승률(2014~2015)

구분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반기	2014년 6월	2015년 6월
가입자 수	2,472명	3,065명	394명	551명
전년도 대비 상승률	.	24.0%	.	39.8%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22) 류기윤·손진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보도자료, 2015.7.13

그림 3-5.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주택가격 변동추이 및 평균 월지급금 변동추이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2)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가입자는 사용자 및 정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국가에서 월별 일정비의 돈을 관리, 감독,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는 이처럼 노령·장애·사망 시 상실된 소득을 보장하는 순수 소득보장제도의 사회보험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만 15~59세의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충실한 보험료 납부를 통해 급

여를 보장한다. 둘째,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기능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셋째, 국가에서 제도를 관리·운영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 넷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연금액이 조정되므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보장된다²³⁾

표 3-8. 국민연금 연도별 가입자 현황

(단위: 천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18,624	19,229	19,886	20,329	20,744	21,125
사업장 가입자	9,867	10,415	10,977	11,464	11,936	12,309
지역 가입자	8,680	8,674	8,675	8,568	8,514	8,444
임의 가입자	36	90	171	207	178	202
임의계속 가입자	41	49	63	89	117	168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터넷 자료실

<표 3-8>에서 보듯이 국민연금은 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2009년부터 사업장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2014년 말 현재 총 2,112만명이 가입해 있고, 344만여명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표 3-9>에서 보듯이 2014년 현재 적립금은 470조원이며 이 중 98조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2043년을 최고점으로 2,561조원까지 자산보유가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후에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감소로 하향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도 현금자산보유가 이렇게 많은 단체는 많지 않다. 2014년 현재 국민연금 규모는 일본, 노르웨이에 이은 세계 3위의 규모이다. 국민연금 가입

23) 국민연금공단 www.nhic.or.kr

연령은 기존에는 18세 이상 ~ 60세 미만이었으나, 2015년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18세 미만자도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적용가입자가 된다. 즉 회사 입사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가입이 되며 해지는 불가능하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경우 국민연금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자산규모는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기준 220조원에서 2014년 470조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것은 국내 GDP의 31%에 해당되는 큰 금액이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금융시장 내에서 갖는 주식 및 채권 투자율은 각각 5.6%와 15.3%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²⁴⁾

표 3-9. 연도별 적립금 및 수익률

(단위: 조 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적립금	219.6	236.0	277.6	324.0	349.0	392.0	426.9	469.8
전체수익률	6.79	-0.18	10.39	10.37	2.31	6.99	4.2	5.25

자료 : 이투데이, 2015.7.29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은 재정의 안정성이나 연금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그리고 사각지대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표 3-10>에서 보듯이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 향후 수급자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인구수 대비 연금수급자 수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기금이 소진되는 사태에 도달할 수도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될 당시 고령자로서 가입할 기회가 없었던 연령층

24) 아시아경제 2015.10.01

이나 가입기간이 짧아 최저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인구, 그리고 보험료 미납부자들의 사각지대 인구들이 적지 않아 이대로 계속된다면 국민연금제도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표 3-10. 65세 이상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수 전망

연도	65세 이상 (천명)		인구수 대비 연금수급자수 (나/가)
	인구수(가)	노령연금수급자수(나)	
2020	7,821	2,285	34.2%
2030	11,899	4,687	39.4%
2040	14,941	7,842	52.5%
2050	15,793	10,196	64.6%
2060	14,583	10,489	71.9%

자료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 인용, 2008

3)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되며,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이다. 종전의 퇴직금제도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는 물론, 퇴직금 수급권마저 보장받지 못할 염려가 있었으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립된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수령가능하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퇴직급여의 수급권 보장,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 직장 이동 시 퇴직급여의 계속성 유지, 세제혜택 등의 이점이 있다.

기업에게는 세제혜택 부여, 장단기 자금흐름 예측, 노사관계 증진, 우수한 인재유치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장점이 있는 노사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

도이다.

표 3-11. 퇴직연금 도입 현황 및 유형

(단위 : 건)

	2012	2013	2014	2015
	01월 04일	01월 04일	01월 04일	01월 04일
합 계	152,910	215,962	259,986	279,995
확정급여형(DB)	56,013	70,868	80,746	84,136
확정기여형(DC)	66,541	109,820	136,963	156,701
확정급여·기여형(DB&DC)	3,157	4,924	6,868	7,158
IRP 특례	27,199	30,350	35,409	32,000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 취급실적 제출자료 취합, 분기별)

그림 3-6. 퇴직연금 도입 현황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 취급실적 제출자료 취합, 분기별)

퇴직연금의 도입현황은 <표 3-11>과 <그림 3-6>에서 보듯이 2015년 1월 4일 기준 합계 279,995개소로서 2012년 1월 4일에 비하여 2배나 가까이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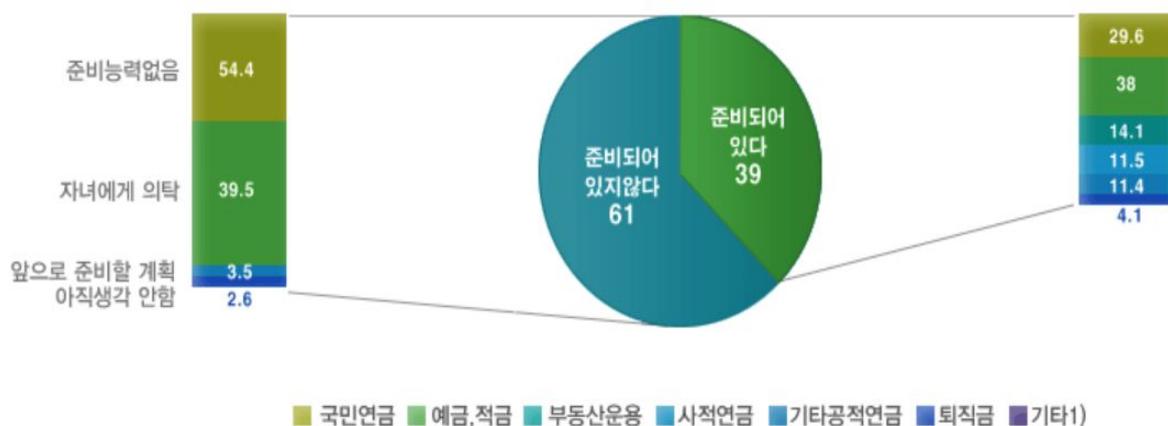
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로 2015년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형태별로는 확정기여형(DC, 56.4%)이 확정급여형(DB, 29.8%)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여부가 노사합의를 필요로 하는 임의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제도가 순조롭게 확산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퇴직연금제도가 확산되고 있어 영세사업장 취약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및 노후소득 확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노령인구 노후자금 형태

<그림 3-7>에서 보듯이 2009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고령자가 61%,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한 고령자가 39%이다. 특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고령자 중에 54.4%로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대답하였고, 39.5%는 자녀에게 의탁한다고 하였다. 반면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한 고령자 중에서는 예금, 적금이 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국민연금(29.6%), 부동산운용(14.1%)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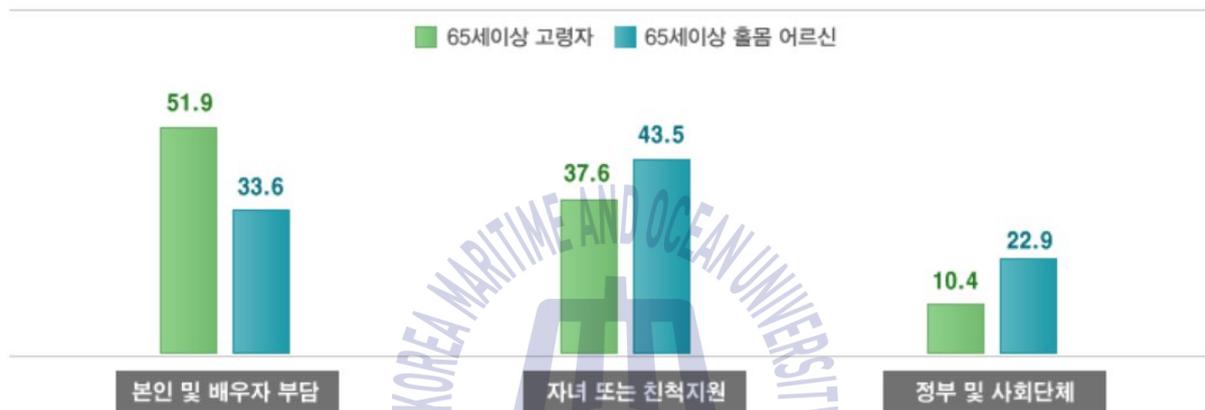
그림 3-7. 65세 이상 고령자 노후준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09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생활비 마련방법의 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51.9%가 본인 및 배우자 부담, 37.6%가 자녀 또는 친척지원이라고 응답했다. 65세 이상 홀몸인 경우 43.5%가 자녀 또는 친척지원, 33.6%가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라고 응답했으며 70세 이후부터는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그림 3-8. 65세 이상 고령자 생활비 마련방법(%)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09

한편 노후에도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는 근로 및 사업·부업소득을 얻고 있는 노인인구 비율은 27.8%이었고, 자산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는 12.5%로 나타났다. 유형별 및 연령별 내역을 보면 <표 3-12>와 같다. 근로소득은 65~69세에 38.9%, 75세 이상의 경우 12.6%에 불과한 수준으로 고령자중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중이 높고 나이가 들수록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반면 사적이전소득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그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65~69세 연령의 사적이전소득은 75.6%에 불과하지만 75세 이상의 경우 82.5%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²⁵⁾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으로 추측되며, 이로 인하여 근로소득은 갈수록 감소한다.

25) 김선중 외1인, 민간역모기지 이용자 특성분석, 국토연구 제50권, 2006.9.

또한 퇴직 직후에는 퇴직금 및 저축액 등으로 가장 높은 자산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가 고령에 이르러 생활비로 소비하게 되면서 자산소득이 소진되어 가는 과정으로 예상된다. 이는 자산소득은 65~69세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가 연령의 증가와 함께 감소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²⁶⁾

표 3-12. 노인의 소득원 유무(복수응답)

(단위:%)

구분	근로소득	자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전체	27.8	12.5	78.6	92.6
65~69세	38.9	14.2	75.6	83.2
70~74세	28.0	11.8	78.7	98.7
75세 이상	12.6	10.7	82.5	99.0

자료 : 한국보건환경연구원,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표 3-13. 고령가구의 소유형태

(단위:%)

구분	고령자단독가구	고령자부부가구	고령가구
자가	66.7	85.4	76.3
전세(월세미포함)	13.6	8.0	10.7
보증부 월세	7.1	2.9	4.9
보증금무월세	3.3	0.7	2.0
사 글 세	2.6	0.6	1.6
무 상	6.7	2.4	4.5
합 계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2000. 참고로 재구성

26) 김갑태, 주택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향후 연구 방향, 주택금융월보, 2007.6.

한편 고령가구의 자가 보유율은 76.3%로 일반가구의 자가 보유율 54.4%에 비해서 높으며 고령자부부가구의 85.4%에 비해 고령자단독가구의 자가 보유율은 66.7%로 낮게 나타났다.²⁷⁾ 그러나 이렇게 고령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자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고령자 부양에서도 경제적 부양의 상당부분을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주택소유만으로 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여유를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²⁸⁾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나온 고령자의 금융소득에 대한 결과는 자산 보유 수준에 있어서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중고령 금융소득자들은 금융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이용에 있어서 중고령 금융소득자들은 이용 편의성에 좀 더 주안을 두었으며, 금융기관 직원을 통해 금융상품이나 투자 정보를 얻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 금융소득자들은 은행과 같은 안전성이 높은 금융기관을 거래하는데 익숙해져 있으며 예금 위주로 거래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금융상품 보유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금융지식 변수였으며 금융지식이 많은 중고령 금융소득자일수록 좀 더 다양한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향후 보유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이나 선호하는 금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연령, 주관적 경제인식, 직업 등으로 나타났다.²⁹⁾

27) 강종만, 역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한 과제, 금융포커스 2005.

28) 성주호외1인, 생명보험회사의 역모기지론 운용리스크 분석, 보험개발연구제16권1호 보험연구원 2005.3.

29) 백은영 2013.9, “중고령층 금융소비자의 금융이용 현황 및 요구도 분석” 소비문화연구 제 16권 제 3호 p.215~242,

제4장 고령화와 금융변화의 특징

제1절 고령인구의 금리에 대한 탄력성 평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우선 저축총량을 감소시킴에 따라 금융자산 수요가 줄어들어 자산(주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자산시장 붕괴설, meltdown hypothesis). 1990년대 초반 미국 주식시장 활황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출생한 베이비부머(baby boomer)들이 은퇴하여 그동안 축적하였던 금융자산을 토대로 소비하는 시점이 되면 주식시장에서 자금이탈이 본격화되어 주식시장이 붕괴될 것이라는 자산시장 붕괴설이 제기되었다. 즉 고령화의 진전은 축적된 금융자산의 유동화를 통하여 소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인구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금융자산의 수요가 공급보다 적어져 자산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³⁰⁾

또한 고령화는 잠재노동투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잠재 성장률을 낮출 수 있다. 이에 따른 저성장은 기업의 자금수요를 낮추어 대출금리 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시장금리의 하락은 예금금리 수준을 하락시킨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예금 공급이 늘어나거나 가계의 저축률 하락에 따라 예금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어 고령화에 따른 예금금리 수준의 향방은 일의적으로 특정하기 힘들다.³¹⁾

결국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65세 이상의 인구의 선호자산이나 소비형태에 따라 금리에 대한 탄력성이 결정될 것이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은퇴하면서 근로소득이 감소하게 되면서 저축률이 감소하고 보유한 금융자산을 유동화 하여 소비에 주력하게 된다면 고령자의 금리에 대한 탄력성은 감소하게 될 것이

30) 장동구 2011.9. “고령화사회 진입이 금융시장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교수팀.

31) 노형식·임진 (2014),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한국금융연구원.

고, 반대로 은퇴 후 근로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안전자산의 선호로 예금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면 고령자의 금리탄력성은 유지될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실제로 우리나라 고령자의 저축률과 선호자산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를 알아보고 그러한 변화와 우리나라 금융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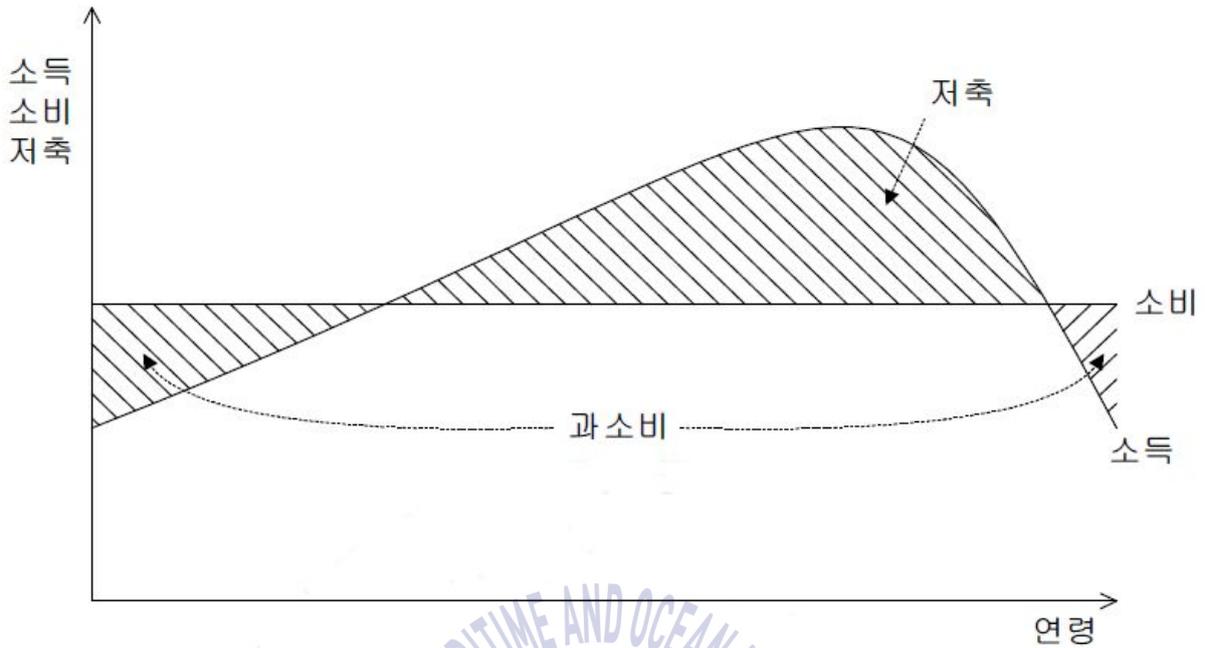
제2절 선호자산(저축)의 변화

고령화와 같은 인구 계층구조의 변화가 금융전반에 미치는 영향, 그중에서도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로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income hypothesis)을 이용한다. 이 가설에 의하면 일반소비자는 직장을 가지기 이전 유·소년기에는 소득 수준이 낮고, 직업을 가지게 되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청·장년기에는 소득수준이 높아졌다가 퇴직 후 노년기에는 다시 소득수준이 낮아지는 소득패턴을 갖는다. 이에 비해 소비패턴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의 소비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림 4-1>은 이러한 생애주기가설의 소득패턴과 소비패턴을 나타내고 있다.³²⁾

유·소년기에는 소비가 소득보다 크기 때문에 음(-)의 저축이 발생한다. 즉 이 시기는 소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빚을 내어 소비를 하게 되므로 과소비영역에 해당한다. 청년기가 되면 대부분 직장을 갖게 되어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소득이 소비수준을 넘어서게 되어 양(+)의 저축이 이루어진다. 계속해서 장년기가 되면 근로소득은 증가하지만 소비는 거의 일정하므로 점차 저축이 증가하게 된다. 노년기가 되면 사회에서 은퇴함에 따라 근로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소비보다 더 적어지므로 음(-)의 저축으로 다시 전환한다.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청장년기에 저축이 발생하여 유소년기와 노년기의 음의 저축을 커버한다.

32) 박수현(2014), 고령화 사회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상품에 대한 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벤처경영학과 벤처경영전공. 석사학위논문.

그림 4-1. 생애주기 가설에 의한 연령대별 소득, 소비 및 저축 유형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2005. 8월 월간브리프

이러한 생애주기이론을 근거로 할 때 인구구조상의 고령자의 인구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면 사회 전체적으로 저축 감소가 발생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표 4-1>은 2002년, 2010년, 2020년, 그리고 2030년까지 노년부양비와 유년부양비의 비교와 함께 저축률과 투자율의 변화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2002년 유년 부양비는 29.6명이고 노년부양비는 10.1이었던 것이 2010년 현재 유년부양비는 21.6으로 8명이 감소하고 노년부양비는 15.5로 4.4명이 증가한다. 이제 2030년까지 예측해보면 유년부양비는 10%p 가량 감소하고 노년부양비는 26.7%p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인구구조가 역삼각형 형태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고령화 현상을 잘 나타내는 전형적인 형태를 띤다.

<표 4-1>은 한국의 이러한 고령화 진전에 따라 저축률과 투자율이 감소하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노년기의 음의 저축을 한다는 생애주기가설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 고령화에 따른 저축률 및 투자율 전망

(단위: %, %포인트)

구분	2002년	2010년	2020년	2030년
노년부양비	10.1	15.5	22.0	36.7
유년부양비	29.6	21.6	18.6	19.8
저축률변화	-	-2.8	-4.6	-11.8
투자율변화	-	-0.9	-1.1	-2.6

자료 : 최공필, 박대근, 이창용, 남재현(2005),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부문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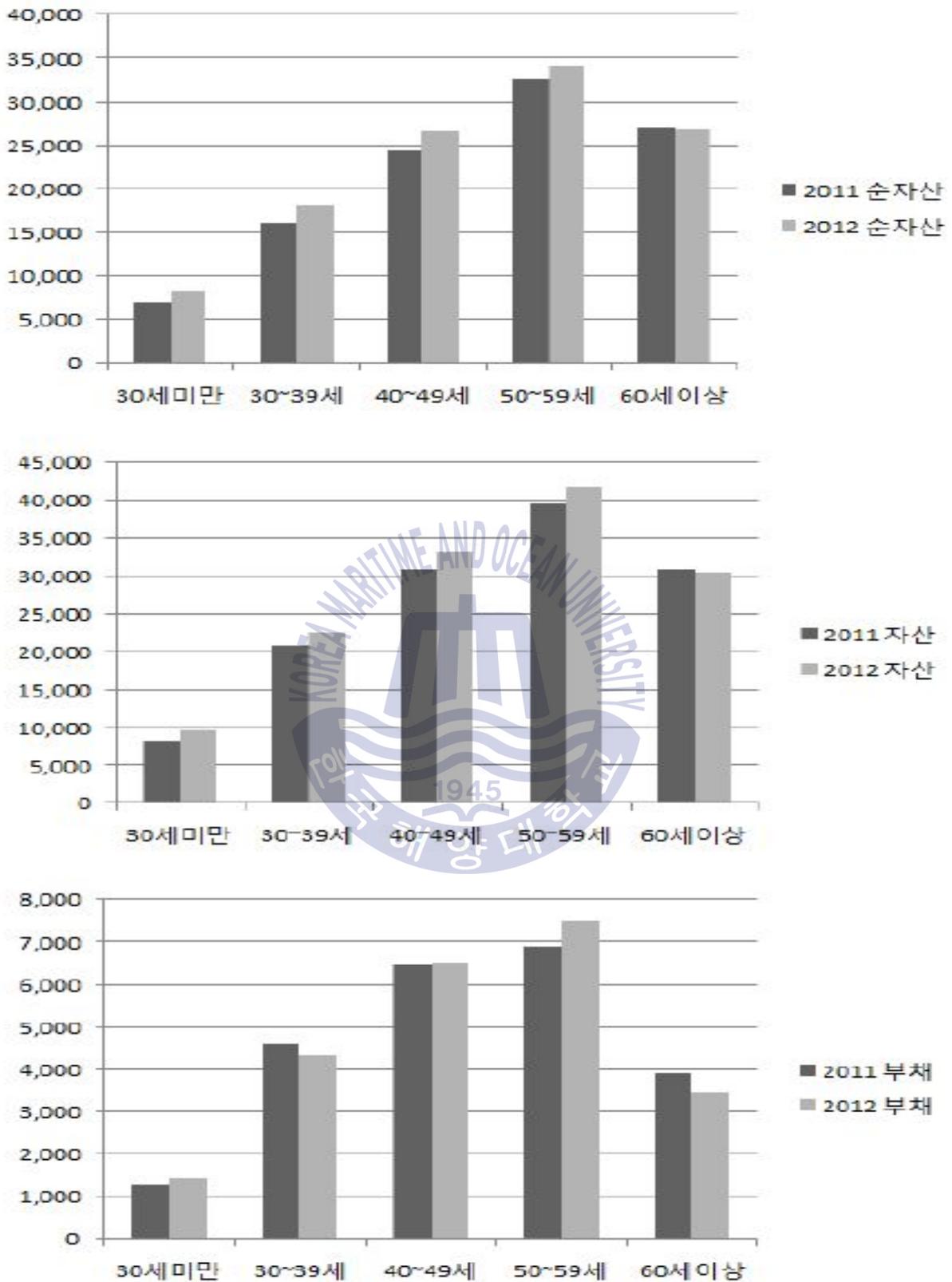
한편 이러한 생애주기소비이론의 결과와는 다르게 고령화의 진행이 오히려 저축률의 상승을 가져올 것 이라는 분석도 있다.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위험자산 보유에 대한 선호가 감소하고 청·장년층이 노후대책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 이를 새롭게 인지하고 준비하게 될 것이란 해석이다.

표 4-2. 가구 특성별 자산과 부채의 규모와 분포

구분	가구 비율		자 산 액				부 채 액				순 자 산				
			증감률		점유율		증감률		점유율		증감률		점유율		
	전년차	전년차	전년차	전년차	전년차	전년차	전년차	전년차	전년차	전년차	전년차	전년차	전년차		
전 체	100.0	0.0	31,495	5.8	100.0	0.0	5,291	1.7	100.0	0.0	26,203	6.7	100.0	0.0	
연령대별	30세미만	3.7	-1.2	9,614	15.7	1.1	-0.2	1,441	13.7	1.0	-0.2	8,173	16.1	1.2	-0.2
	30~39세	18.5	-0.5	22,464	8.3	13.2	0.0	4,308	-6.5	15.1	-1.7	18,156	12.6	12.8	0.4
	40~49세	26.2	1.2	33,132	7.3	27.6	1.6	6,519	0.8	32.3	1.2	26,613	9.0	26.6	1.8
	50~59세	23.3	1.3	41,611	5.2	30.7	1.6	7,521	9.1	33.1	4.0	34,090	4.4	30.3	1.1
	60세이상	28.3	-0.9	30,457	-1.5	27.4	-2.9	3,473	-10.9	18.6	-3.3	26,984	-0.1	29.1	-3.0

자료 :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2012),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도자료

그림 4-2. 연령대별 가계 순자산, 부채 및 자산보유



자료 :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2012),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도자료

이러한 분석은 <표 4-2> 가구 특성별 자산과 부채의 규모와 분포 자료와 <그림 4-2> 연령대별 가계 순자산, 부채 및 자산보유 자료를 통하여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두 자료를 보면 자산과 순자산, 부채액은 30세 미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50~59세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60세 이후에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결과는 생애주기소비이론과 마찬가지로 60세 이후 줄어드는 소득에 비해 소비를 유지를 유지하기 위해 자산이 줄어드는 것이다. 반면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자산과 순자산액의 감소에 비하여 부채액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고령화에 따라 위험자산이나 부채를 줄이려는 행태로 해석할 수 있다. 그들은 줄어드는 소득만큼이나 안정적인 자산보유를 선호하는 것이다.

<표 4-3>은 2011년 기준 가구주 연령별 금융자산의 보유 현황과 금융자산의 구성은 보여주고 있다. 전체 금융자산액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50대를 정점으로 가장 많게 된다. 그러다가 60세 이상의 연령에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9세 이하의 경우 적립식 저축액이 예치식 저축액의 2배가 넘는다. 그러나 40대를 거쳐 그 격차가 줄어들고 50대에 이 수치는 역전된다. 60세 이상의 경우 예치식 저축액이 적립식 저축액보다 1.7배 더 높게 나타났다. 예치식 저축의 세부항목을 보면 50대에 정점을 찍은 예치식 저축·펀드와 주식과 채권 등으로 이루어진 주식·펀드에서 크게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고령인구의 경우 적립식 저축보다는 예치식 저축을, 주식·채권보다는 예치식 저축·펀드를 더욱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생애주기가설의 결론과 일치하고 있다. 즉 근로소득이 있는 50대까지는 적립식 저축을 통해 자산축적을 하고, 퇴직 후 근로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축적된 자산을 예치식 저축을 통해서 자산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3. 가구주 연령별 금융자산 현황

(단위: 만원)

구분	39세 이하	40대	50대	60세 이상
금융자산	7,806.8	9,479.2	9,648.3	4,914.3
저축액	3,974.6	6,662.1	7,947.0	4,108.3
적립식 저축	2,533.2	3,818.0	3,957.3	1,445.9
예치식 저축	1,035.4	2,116.0	3,235.7	2,428.6
예치식 저축·펀드	584.0	1,134.6	1,906.3	1,860.0
주식·채권 등	311.8	566.5	838.9	380.5
주식	285.8	542.5	776.2	363.3
채권	25.2	17.1	53.6	7.5
권리금	139.6	415.0	490.4	188.1
기타 저축	406.0	728.1	754.0	233.9
현거주지 전월세보증금	3,832.3	2,817.1	1,701.3	8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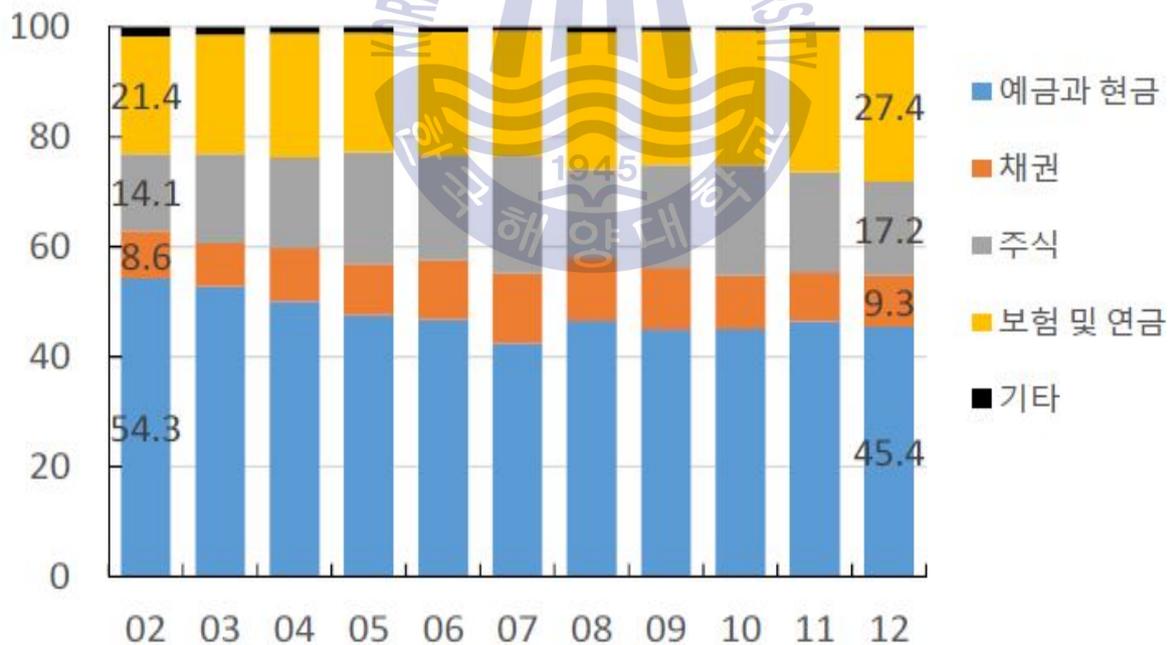
자료 :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4-3>은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구성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은 예금과 현금, 주식, 채권과 연금 및 보험 등으로 구성된다. 2002년의 경우 보험 및 연금의 비중은 21.4%인 반면에 예금과

현금은 54.3%로 절반이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2년 현재 21.4%였던 보험 및 연금의 비중은 27.4%로 증가하고 54.3%였던 예금과 현금의 비율은 45.4%로 감소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금융자산의 구성이 완만하지만 예금과 현금에서 보험 및 연금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보험 및 연금 비중의 상승은 의료비 등 수명연장에 따른 지출 측면에서의 불확실성 증대에도 일부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³³⁾

<그림 4-4>는 주요국 가계부문의 금융자산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예금과 현금의 비율이 높다. 반면 독일을 제외한 주요 서구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보험 및 연금 비중이 높다. 이에 비해 독일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연금과 현금 비중뿐만 아니라 보험 및 연금 비중도 높지만 주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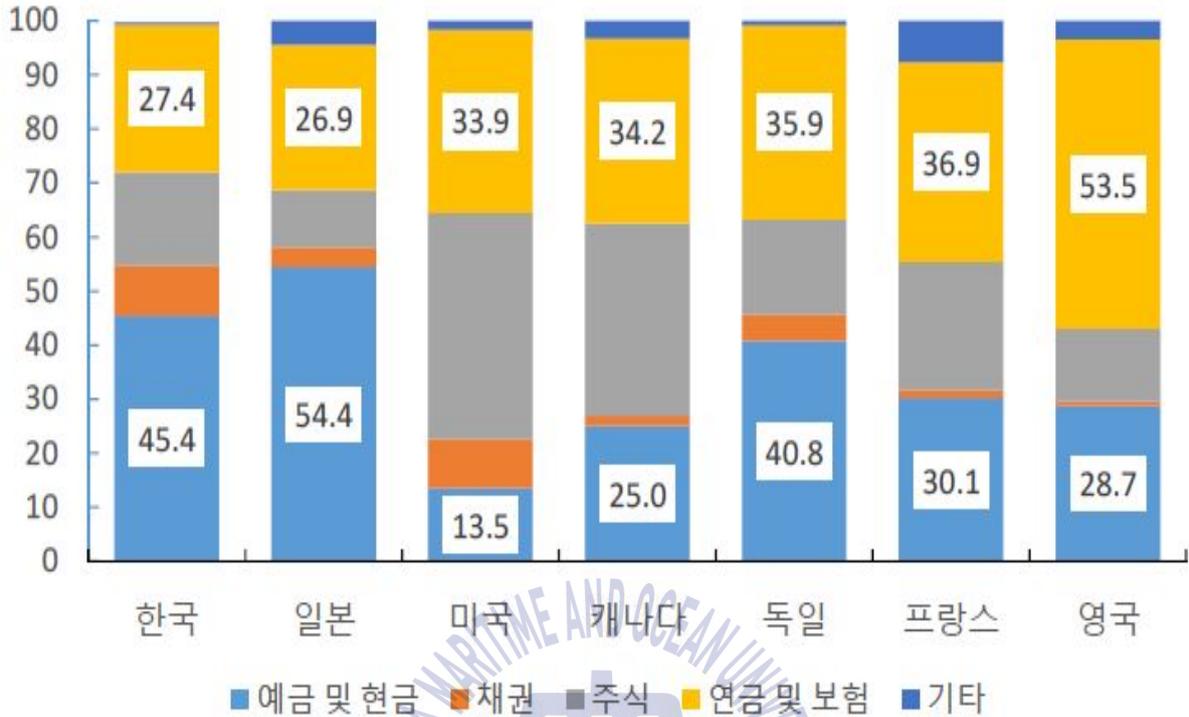
그림 4-3.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구성 연도별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각호

33) 노형식·임진(2014),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한국금융연구원

그림 4-4. 주요국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구성



자료 : OECD, Financial Balance Sheets

<그림 4-5>는 전체 가구의 금융자산을 형성할 때 고려사항의 비중을, <그림 4-6>은 현재 노령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베이비 붐세대의 금융자산을 형성할 때 고려사항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 두 고려사항을 비교하면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려사항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추론할 수 있다.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안정성을 75.9%, 수익성을 12.2%, 접근성을 6.7%와 현금화가능성을 5.3%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반면 현재 노령자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에는 안정성이 77.5% 수익성이 10.5%, 접근성이 7.0%와 현금화가능성은 5.0%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금융자산 비중과 비교하여 베이비 붐세대의 경우 안정성 비중은 증가하고 수익성 비중은 하락하였고, 접근성과 현금화가능성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것은 고령자일수

록 자산의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위험회피 성향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인 자산의 선택의 우선순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령층들의 금융자산에 관한 행태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 추론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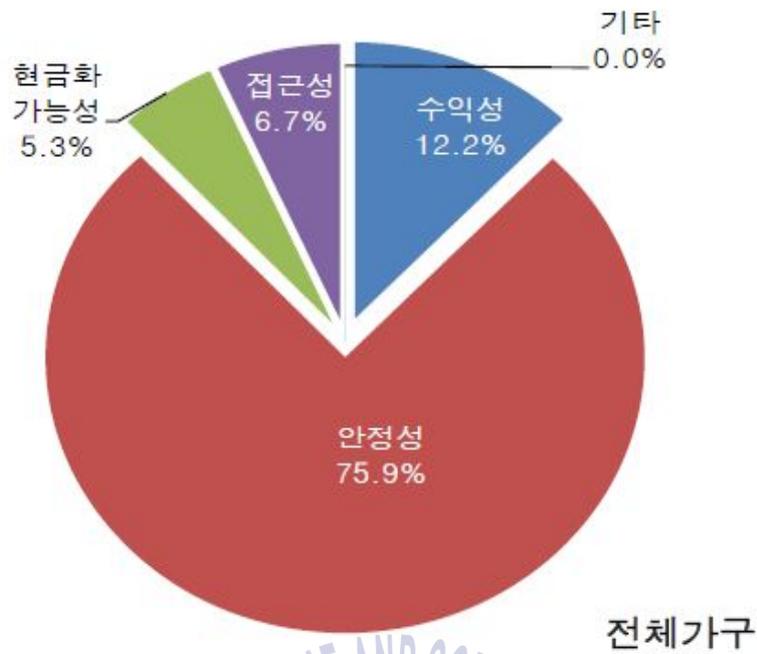
첫째 고령층은 위험회피 성향이 다른 세대보다 강하기 때문에 금융자산 선택에서 리스크가 높은 주식보다는 채권을 더 선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 중에서도 만기가 길수록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만기가 짧은 회사채나 리스크가 작은 국공채의 운용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금융자산의 관리를 전문가에 위탁할 것이다. 고령층은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 수익성이 높은 금융자산을 선별해 낼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일부 수익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도 위험을 회피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셋째, 금융자산관리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지금까지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high risk high return'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위험회피 성향이 높고 미래보다 현재를 더 중시하는 새로운 계층이 금융시장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은행은 이런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개발 노력을 하고 있다. 즉 PB 및 맞춤형 신탁, 증권사 랩어카운트, 보험사의 변액보험 등이 도입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과 2005년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으로부터 방대한 자산운용 수요로 인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이들의 영향이 증대될 것이다.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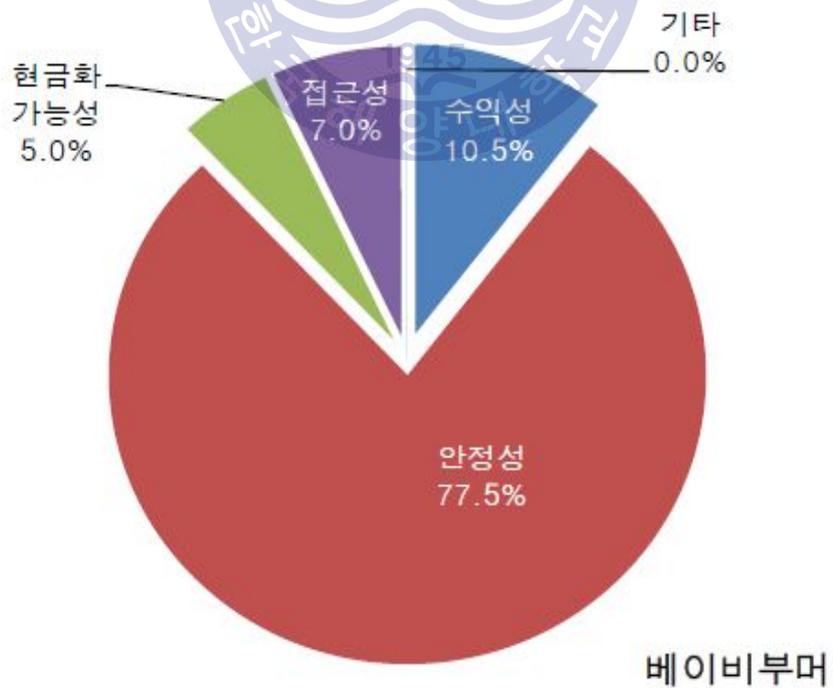
34) 최동원(2008), 고령화 사회 진도에 따른 신용카드 마케팅 방안

그림 4-5. 전체 가구의 금융자산 고려사항 비중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2)

그림 4-6. 베이비부머 금융자산 고려사항 비중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2)

제3절 정책적 시사점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될 때 기본적인 특징은 고령인구의 가계소득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다. 즉 근로소득이 급감하기 때문에 노후 생활자금을 위해 다른 소득이 필요하게 된다. 생애소득가설에 의하면 청장년시기에 형성된 자산을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노후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때 자산형성이 금융자산형태로 이루어진다면 고령화현상은 금융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것은 고령층의 금융상품 선택으로 지금까지 사회의 금융상품 구성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노후의 생활을 기본적인 삶, 안정적인 삶과 풍요로운 삶으로 구분한다면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 노후자금은 150-200만원 수준,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350-500만원 수준,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5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이런 기준 하에서 현재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생활수준을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혜자들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극히 일부 대기업 CEO 및 임원 등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다수 일반근로자 퇴직자들은 기본적인 삶의 노후자금의 1/10정도 밖에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한국 인구구성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가 노령인구에 편입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런 고령화현상은 금융자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고령화 될수록 소득이 감소하지만 소비는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기존 보유자산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기금융자산에 대한 비중이 전반적으로 줄고 특히 주식시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³⁵⁾ 반면 한국의 금융환경을 감안할 경우 여타 국가와는 다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실물

35) KIDI(2003),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대응과제

자산 보유에 비해 금융자산의 축적이 다른 나라에 비해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자본시장의 발달이 늦어지면서 채권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개인의 주식 보유 비중도 높지 않아 노년층 증가로 인한 위험 회피로 발생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침체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상당 기간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융시장 개방과 신 금융상품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한국도 선진국과 유사하게 금융자산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는 시각도 있다.³⁶⁾

이런 금융환경에서 준비되지 않은 노령인구의 노후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정부차원의 대응방안을 생각해 보자. 첫째, 사회 복지차원에서 사회적 보험의 강화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제도가 성숙되지 않아 저축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은퇴 후 생활여건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노령인구의 노후자금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평균 수혜액이 기본적인 삶의 1/10정도로 적다. 따라서 가계가 수명연장 및 의료 관련 리스크를 감안해 은퇴 이전에 저축을 충분히 증대시킬 수 있도록 촉진정책과 함께 복지차원의 노후자금 보조정책이 필요하다. 기업보장의 퇴직연금제도와 같이 근로자들의 퇴직 후 일시금보다는 연금형태를 강화하는 법적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둘째, 가계의 자산 및 부채 포트폴리오 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가계는 앞으로 닥쳐올 고령화시대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가운데 그나마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가치하락 가능성이 높은 실물자산형태로 보유하고 있다.³⁷⁾ 이런 실물자산은 저축에 의한 것보다 은행대출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가계부채로 남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런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36) 삼성경제연구소

37) 노형식·임진(2014), p. 69

셋째, 정부는 가계소득 둔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령화로 인해 성장률이 하락하면 가계소득 증가세가 정체되고 내수기반이 약화되어 장기적으로 국내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가계소득 확대를 통해 내수증대, 고용확대 등을 촉진시켜 성장률을 높이는 선순화 구조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³⁸⁾

넷째, 금융시장의 안정성유지를 위한 금융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예금과 현금, 연금 및 보험과 부동산 형태의 자산 비중이 높다. 다시 말해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서구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만큼 서구 선진국과 비교해서 금융시장이 덜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고령화 인구의 중요한 특징이 안정적인 자산을 추구하므로 고령인구를 금융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시스템구축의 중요성이 점증할 것이다.

다섯째, 퇴직 후 금융자산과 근로소득의 연계방안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퇴직 근로자들이 노후 자금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는 퇴직자들은 재취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다. 그러나 사회는 고령화되어가면서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또한 체화된 인적자본의 손실을 가져와 사회후생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퇴직 근로자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퇴직 후 근로소득과 연계한 연금 및 보험, 기타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고령인구를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후준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61%의 응답자가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의 주요 원인이 출산율의 저하와 기대수명의 증가임을 고려할 때 응답자 61%의 절대적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는 국민연금을 통해 기본적인 삶을 위한 노후자금의 10%정도 밖에 커버를 하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금융상품이 마련되어야 한다.

38) 노형식·임진(2014), p. 70

현재 은행은 2005년 법적 근거로 퇴직연금을 취급하고 있다. 또한 연금저축인 연금저축신탁은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수익률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 반면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수익률이 높지만 원금보장이 되지 않고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자산축적 단계에 있는 연령층들이 소득 확보를 위해 위험과 수익률 간의 상쇄관계(trade-off)를 다양하게 조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금융자산의 적정 수익률 유지이다. 고령인구는 대체로 안정성을 더 추구하지만 수익률도 무시하지 않는다. 안정적이면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융산업은 비이자부문의 상대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한 금융이용자 만족도 제고와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의 현실적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고령자 대상 자산관리 비즈니스 제공이다.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면서 금융산업에서는 수익률이 낮아졌고, 고령인구들은 자산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은 2000년 중반 퇴직금 정기예금, 신탁은행과 제휴를 통한 상속업무 지원 서비스 등 노령인구들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자산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이런 자산관리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방안이다. 국내 금융산업은 저금리 기조의 정착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다. 좀 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BRICS로 대변되는 신흥국들은 여전히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니즈가 산재해 있으나, 금융산업이 낙후되어 있거나 금융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³⁹⁾ 이에 따라 해외진출 한국기업들을 활용한 기업금융이나 해외 인프라금융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39) 노형식·임진(2014), p. 67

제5장 결 론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세계적 인구학자 해리 덴트(Harry Dent)⁴⁰⁾는 제16회 세계지식포럼에서 2018년 한국은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⁴¹⁾을 경험할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며 고령화로 소비동력이 약화되어 가장 큰 타격이라고 내다보았다.

고령화가 심각한 이유는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경제가 위축된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자료로 뒷받침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의 주요 요인은 기대수명연장과 저출산 문제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령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 분명하다.

한국사회에서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자산축적은 금융자산보다 부동산비중이 높다. 모든 근로자는 퇴직 후 근로소득이 격감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예금 및 현금, 주식, 채권, 연금 및 보험 등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비중이 높다. 그러나 국제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가격하락으로 노후자금이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다.

둘째, 노후 생활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60%이상이 노후 생활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퇴직 후 기본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노후자금의 10%정도 마련된 상태이다. 노후 대책이 미비하여 제대로 된 자금마련이 되어있지 않으면 은퇴 후 급격한 소득의 감소

40) HS덴트 투자자문(대표)

41) 인구통계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한세대의 소비가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여 다음 세대의 소비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 경제가 둔화되는 시기이다.

로 인하여 소비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는 개인적으로 소비의 불충분이 라는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셋째, 한국 노령인구는 자산의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연금 및 보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산업은 이를 기반으로 적어도 이들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방향설정과 제도적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먼저 정부차원의 대응방안을 생각해보자. 첫째, 사회 복지차원에서 사회적 보험의 강화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성숙되지 않아 저축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은퇴 후 생활여건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가계의 자산 및 부채 포트폴리오 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상당한 많은 자산이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부채와 다른 자산형태로 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는 가계소득 둔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령화로 인해 성장률이 하락하면 가계소득 증가세가 정체되고 내수기반이 약화되어 장기적으로 국내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가계소득 확대를 통해 내수증대, 고용확대 등을 촉진시켜 성장률을 높이는 선순화 구조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금융시장의 안정성유지를 위한 금융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 고령화 인구의 중요한 특징이 안정적인 자산을 추구하므로 고령인구를 금융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시스템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퇴직 후 금융자산과 근로소득의 연계방안 마련이다. 퇴직 근로자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퇴직 후 근로소득과 연계한 연금 및 보험, 기타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다음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고령인구를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산축적 단계에 있는 연령층들이 소득확보를 위해 위험과 수익률 간의 상쇄관계

(trade-off)를 다양하게 조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금융자산의 적정 수익률 유지이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해 제로 금리에 가까울 정도로 저금리시대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매우 낮다. 고령인구는 대체로 안정성을 더 추구하지만 수익률도 무시하지 않는다. 안정적이면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융산업은 비이자부문의 상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셋째, 고령자 대상 자산관리 비즈니스 제공이다.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면서 금융산업에서는 수익률이 낮아졌고, 고령인구들은 자산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도 이런 자산관리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방안이다. 금융산업이 낙후되어 있거나 금융 인프라가 부족국가에 해외진출 한국기업들을 활용한 기업금융이나 해외 인프라 금융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금융상품 공급주체들의 변화와 같이 소비주체들의 인식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고령자들은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행동에 대하여 익숙하지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산업의 새로운 금융상품들에 대한 개발 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 은퇴를 앞둔 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여 사회초년생까지 노후에 소비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종구·김영준(2013), 인구고령화와 산업구조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19권 제3호 pp 233-289
- 강종만(2005), 『역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한 과제』, 금융포커스
- 김갑태(2007), 『주택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향후 연구 방향』, 주택금융월보
- 김경수·유경원(2014) 『고령화가 가계부문 금융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금융연구원 working paper 14-09
- 김선종 외1인(2006), 민간역모기지 이용자 특성분석, 『국토연구』 제50권
- 김원식(2011), “고령화시대와 연금: 미래를 위한 디자인”, 한국연금학회, 『연금연구』, 제1권 제 1호, pp 1~35
- 김주희(2011) 『실버계층의 소비자타일분석을 통한 금융마케팅 전략』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향숙(2008) 『고령화 사회와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재무부동산학과 석사학위논문
- 노형식·임진(2014),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한국금융연구원
- 류기윤·손진국(2015),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보도자료
- 박성욱·이규복(2013),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국내 및 해외포트폴리오투자 행태변화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04
- 박수현(2014) 『고령화 사회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상품에 대한 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벤처경영학과 벤처경영전공. 석사학위논문.
- 백부현(2013), 『고령화 사회에 있어 노후 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은영(2013), 『중고령층 금융소비자의 금융이용 현황 및 요구도 분석』 소비문화연구 제16권 3호 p.215~242

- 보험개발원(2003), 『퇴직연금시장의 전망과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성주호외1인(2005), 『생명보험회사의 역모기지론 운용리스크 분석』, 『보험개발 연구』 제16권 1호, 보험연구원
- 이일국(2006) 『고령인구의 증가가 국내금융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책』 동아 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 장동구(2011) 『고령화사회 진입이 금융시장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교수팀.
- 정은보(2012),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주택연금의 역할”, 『주택금융월보』, 통 권 제101호
- 최동원(2008), 『고령화 사회 진도에 따른 신용카드 마케팅 방안』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신용카드학과 석사학위 논문
- 최정일·안창용(2015), 『고령화에 대비한 다양한 융복합 금융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4), pp137-146
- 한국은행(2004),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선택 결정요인』, 금융경제연구원
- KDI(2003),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대응과제』